PROVIDING POSTCOLONIAL PASTORAL CARE AND PRACTICE USING INTERDEPENDENCE AND HOSPITALITY APPROACHES IN THE MULTICULTURAL CONTEXT OF KOREA: A GROUNDED THEORY APPROACH

A Practical Research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Hwanwoong Yong

May 2021

This Practical Research Project completed by

Hwanwoong Yong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th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Namjoong Kim, Chairperson
Hyun Sun Oh

Dean of the Faculty

Sheryl A. Kujawa-Holbrook

May 2021

ABSTRACT

PROVIDING POSTCOLONIAL PASTORAL CARE AND PRACTICE USING INTERDEPENDENCE AND HOSPITALITY APPROACHES IN THE MULTICULTURAL CONTEXT OF KOREA: A GROUNDED THEORY APPROACH

by

Hwanwoong Yong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this project conducted a qualitative study of pastoral care and the practices of pastors in their forties who have met migrants experiencing discrimination, exclusion, and alienation in Korean urban villages. In this research, I had in-depth interviews with pastors and analyzed the results of the qualitative study through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Through this approach, I found that pastors were indifferent to migrants, and my analysis revealed that their indifference originated from a lack of understanding and education for multicultural pastoral care.

Through Postcolonial and Hospitable Multicultural Pastoral Care, I attempted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migrants and suggested practical forms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for the pastors ministering in urban village fields. I expect that this method can promote interdependence, recovery of conflict, and hospitality towards migrants who experience discrimination, deepening conflict, exclusion, and alienation.

KEYWORDS: Migrants, Qualitative Study and Grounded Theory, Multicultural Pastoral Care, Hospitality Theology,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국문 초록

한국 다문화 상황에서 상호의존과 환대 중심의
포스트식민주의 목회 돌봄과 실천 제시: 근거 이론을 중심으로

by
Hwanwoong Yong

본 프로젝트는 한국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나와 같이 차별, 배제 그리고 소외를 경험한 이주민을 만난 적이 있는 40 대 목사들의 목회 돌봄과 실천을 질적 연구에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나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개방 코딩, 축 코딩, 그리고 선택 코딩을 통해 나는 연구 참여자들이 이주민에게 관심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 무관심은 이주민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되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환대를 지향하는 다문화적 목회 돌봄과 실천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나는 탈식민주의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환대 신학을 통해 환대 지향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제시하였다. 실천적인 방법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하여 서로 함께하는 예배와 환대의 밥상 그리고 이주민 보호교회 네트워크를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에게 제안하였다. 이 제안이 차별과 갈등 심화와 배제와 배타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도시 마을 이주민들에게 상호의존과 환대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키워드: 이주민, 질적연구와 근거이론, 다문화적 목회 돌봄, 환대 신학, 다문화 이해교육

SUMMARY

Korean society has been turning into a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society.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e number of migrants living in Korea has increased to 2.1 million, a 7-fold increase over the past 20 years. In 2021, the number of migrants and their children living in Korea is more than 2.7 million, and this group is expected to reach 5.5% of the total population by 2021. Accordingly, citizens are actively engaging in discourses about an increasingly multicultural society, but these discussions are fueling conflict rather than creating alternatives, and the awareness of cultural coexistence is low among native Koreans.

The growing diversity is generally reflected in the specific context of Korean urban villages. This phenomenon seems to have caused urban village migrants to experience marginalization and being labeled as "the others." The reason is that in Korean society and culture, colonialism and imperialism, which are already embedded, are reproduced. The otherization of migrants surfaces in the form of rejection, control, and suppression. And the dual perspective which was culturally formed can be described as "Orientalism." The perception and awareness of Orientalism emerges as a social phenomenon, which occurs when native Koreans encounter migrants.

For this project, I conducted a qualitative study of the pastoral care and practices of pastors in their forties who have met migrants in Korean urban villages. I had in-depth interviews with pastors and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qualitative study through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This approach showed that the pastors were indifferent to migrants. The causes of indifference included a lack of experience and preparation for pastoral care, and the loss of nuanced values that withhold judgement. In addition, I found that for the care of migrants, the pastors only made a perfunctory effort instead of going further beyond sharing gospel with them.

They failed to develop further relationships and engage in education for multicultural understanding. Through these results, I found a need for hospitality towards migrants and multicultural pastoral care. Furthermore, I found that the otherization is deeply imprinted in the colonialist perception that pastors are the subject of giving and migrants are the object of receiving.

The results of my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s revealed that Multicultural Pastoral Care should be established for pastors in their forties in the pastoral context of urban villages. Therefore,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Postcolonialism, I recognized the situation faced by migrants and examined Hospitable Multicultural Pastoral Care through Hospitality Theology. In addition, I propose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To do this, I explored the theories of Frantz Omar Fanon, Edward W. Said, and Homi K. Bhabha, which constitute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Postcolonialism. I investigated how to apply them to Multicultural Pastoral Care. I also examined the Theology of Hospitality for migrants through Emmanuel Levinas, Dietrich Bonhoeffer, Letty M Russell, and Jacques Derrida, and provided a definition for Hospitable Multicultural Pastoral Care. Additionally, through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I propose a practical method of “Worship Service with Each Other,” “Dining Tables of Hospitality,” and “Migrants Sanctuary Church Network” as ways to practice Hospitable Multicultural Pastoral Care toward migrants. Through these practices, I hope that the pastors ministering in the specific context of Korea urban villages will be free from the indifference to migrants and develop “interdependence” in order to embrace migrants who experience discrimination, deepening conflict, exclusion, and alienation.

국문요약

현재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다민족, 다문화, 이주민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체류 이주민이 210 만여 명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 20 년 동안 무려 7 배가 증가한 수치이며 2021 년에는 체류 이주민은 더욱 늘어나 그 자녀 수가 국내 총인구 중 5.5% 수준인 270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 사회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대안의 제시가 있어도 새로운 갈등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선주민의 문화공존 의식도 낮은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 마을에서 갈등을 겪었던 이주민들이 타자화를 경험하게 되는 원인으로 발견하였다. 이것은 한국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이미 우리 안에 내재하여 있으나 보이지 않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적 패턴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민을 향한 타자화는 그들을 배격, 지배, 억압하는 태도로 표면화될 것이며,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중시선은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오리엔탈리즘의 인식과 자각은 우리가 이주민을 경험할 때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이주민을 경험한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40 대 목사들을 심층 면담하여 이주민에 대한 경험을 질적 연구에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나는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40 대 목사들이 이주민에 관해 관심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이주민에 대한 무관심은 이주민 경험에 대한

노력 부족, 판단을 유보하는 복합적인 가치관 형성 배경 등과 함께 이주민을 향한 목회 돌봄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이 원인이었다. 또한, 이주민을 향한 목회 돌봄은 형식적으로 대처했고, 이주민과 소통할 기회가 생겨도 복음 제시에 그쳤으며, 그들에 대해 관계 개선의 노력과 다문화 이해교육이 부족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목회 돌봄의 결과들을 통해 이주민을 향한 환대의 필요성과 돌봄의 실천에서 다문화적 목회 돌봄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또한, 목사들은 주는 주체이고 이주민은 받는 대상임이 뿌리 깊이 각인된 식민주의적 인식의 타자화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심층 면담을 통해 분석한 결과들은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40 대 목사들의 이주민을 향한 다문화적 목회 돌봄이 확립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탈식민주의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환대 신학을 통해 환대 지향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프란츠 파농(Frantz Omar Fanon)과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 그리고 호미 바바(Homi K. Bhabha)를 통해 탈식민주의의 이론을 살펴보았고, 다문화적 목회 돌봄 적용 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레티 러셀(Letty M Russell), 그리고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를 통해 이주민을 위한 환대 신학을 살펴보았고, 환대 지향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이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해 이주민을 향한 환대 지향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 함께하는 예배와 환대의 밥상, 이주민 보호교회 네트워크의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국의 교역자들이 차별과 갈등 심화와 배제와 배타를 경험하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상호의존과 환대 지향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온전히 실천하기를 바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Chapter Ⅰ

서론
(Introduction)

A. 문제제기

나는 한국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로 일본을 포함한 다양한 도시 마을과 목회 현장에서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왔지만 '이주민'[1]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없었다. 그러던 중, 사역하는 교회에서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여 아동부 어린이 친구초청잔치(전도축제)를 진행하였다. 교회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들과 학부모를 초청하여 교회를 소개하고 어린이 예배공간을 방문하는 시간이 있었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혼인이주민 엄마와 자녀가 참석했으나 담당 목사인 나뿐만 아니라 사역하는 교회 교회학교 교사들도 그들을 환대할 준비가 되지 못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힘겹게 말하는 엄마가 있었는데 그 점을 배려하지 못하여 소통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진행을 돕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난처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나도 교사들처럼 당황했으며, 심방하면서 교회 주변에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색이 다르고 한국어를 힘겹게 말하는 이주민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았던 나 자신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이 왜 일어났을까? 이것은 한국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이미 우리 안에 내재하여 있으나 보이지 않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적 패턴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주민을 향한 타자화는 그들을 배격, 지배, 억압하는 태도로 표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 이 글에서 '이주민'은 다른 나라에서 한국사회로 이주한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로 사용할 것이다. 박흥순, "'평화'에 비추어 본 '이주'와 '이주민'," in 박노자 et al., *지구화와 이주 그리고 생명평화* (대구: 도서출판참, 2019), 96.

사역하는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중시선은 다름 아닌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2]으로 설명할 수 있다.[3] 오리엔탈리즘의 인식과 자각은 우리가 이주민을 경험할 때 우리 사회 현상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험은 내게 이주민을 향한 '환대-안의-일치'를 고민하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환대-안의-일치'는 '긴장-속의-일치'[4]를 극복하고 '차이'를 환영함으로 환대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환대란 경계요소들이 만들어낸 긴장 관계를 허물고 하나 됨을 실천하는 개인 및 공동체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나와 비슷한 상황인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은 이주민들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을까? 나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주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2018 년 1 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 수업 중 하나인 오현선의 'Transforming Self and Educational Ministry in the Multicultural Korean Context'의 강의 자료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우월감에 근거한 갈등이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을 잠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 다문화사회 담론에 따르면 이주민은 이웃이지만 선주민은 그들을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으며, 그 인식에 따라 심리적 억압을 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나와

---

[2] 본 프로젝트 44 쪽,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개념 설명을 참고하라.

[3] 박흥순 et al., *다문화사회 이야기마당: 다문화교육 매뉴얼*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38.

[4] '긴장-속의-일치'란 강한 자의 지배논리에 약한 자가 복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치를 말한다.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trans. 여금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105, 108-09.

비슷한 연령과 목회경력을 가진 40 대 목사들이 이주민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며 대하고 있는지 질문하게 되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 현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으며, 더불어 도시 마을에서 다문화 현상을 이해에 온 방식과 그 한계에 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B. 논지에 대한 토론

한국 사회는 그동안 단일민족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중국 동포를 수용한 지 30 여 년이 되지 않아 이주민 200 만 명을 넘어서는 사회가 되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인구학적으로 살펴볼 때 빠른 속도로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바뀌고 있다. 다문화 시대의 출현은 1990 년대 정부가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을 개방하며 시작하였다. 여기에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2007 년 재외 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가 도입되면서 체류 외국인이 100 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16 년 200 만 명을 웃돌면서 다문화 시대로의 속도가 급속히 진행하였다.[5] 1998 년에는 30 만여 명, 2008 년에는 110 만여 명이었음을 고려한다면, 그 증가율은 20 년 여 만에 무려 7 배 정도 증가한 셈이다. 게다가 체류 외국인은 더욱 늘어나 외국인 및 이민자와 그 자녀 수가 2020 년 5 월 말 현재 2,143,804 명에 이르고 있다.[6] 2 백만 명이 넘는 이주민이 오늘날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한국 사회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이지만, 선주민들은 아직 이주민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선주민이 인식하는 이주민은 도시 마을에서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 도시

---

[5] 조성돈 et al., *더불어 사는 다문화 함께 하는 한국교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2), 35–36.

[6] 법무부, “2020 년 5 월 출입국 동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May 3, 2020, http://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227&fn=temp_1597992655350100.

마을에서 이주민은 고립,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낯선 사람'이다. 선주민은 '낯선 사람'으로서 이주민을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7] 그렇기 때문에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는 이주민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그 개인이 지니고 있는 '문화'를 '다름'으로 인정할 수 있다.[8]

이렇듯 도시 마을의 환경이 다문화지만, 도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적응환경은 갈등이 많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정체성 혼란, 학습부진,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혼인이주민 어머니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어렵고, 학교 제도 이해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자녀의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이주민들은 도시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은 이주민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살려 이주한 도시 마을에 적응하고 계속해서 잘 정착할 수 있는 목회 돌봄을 실천할 수 있다.[9] 또한, 이주민들에게 환대를 시작하고 상호 공감(mutual empathy)의 태도로 다문화사회의 평화로운 공존의 터를 형성할 수 있다.[10]

이주민들은 자신들이 지켜온 모국(home country)의 정서와 문화적 경계(emotional and cultural boundaries)들을 인식하고 새로운 사회(second home country)의 구성원으로서 겪어야

---

[7] 박노자 et al., *지구화와 이주 그리고 생명평화*, 97.
[8] 오현선, *기독교다문화교육 다름·다양성·관용* (서울: 꿈꾸는터, 2014), 78.
[9] 오현선, 79.
[10] 오현선, 83.

할 생활과 역할의 변화를 추측하면서 이주해 온다.[11] 하지만, 이들이 직면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예견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더 나아가 이주민이라는 단순 개념보다는 피부색이 다르고 가난한 외국 사람들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런 인식과 감정으로 인해 이주민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등 또 다른 차별과 편견을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은 이주민과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과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공유할 수 있다.[12] 또한, 이주민들이 타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연대하며, 상호존중하는 목회 돌봄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하여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가 섬기는 교회는 소수의 이주민과 상호 존중하는 환대의 이음새 역할을 감당하고, 이주민 각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교회의 공간을 재편성하여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환대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이처럼 이주민들을 이해하는 방식과 한계를 통해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은 이주민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따라서 나는 본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은 도시 마을에서 타자화되고 주변화되고 있는 이주민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좀 더 발전시킨다면, "이주민을 향한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의 목회 돌봄은 어떠한가?"이다. 이 질문을 통해 나는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에게 질적연구 방법 중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이주민을 향한 환대를 지향하는 목회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 심층 면담을 통해 분석해보려 한다.

---

[11] 오현선, 18.

[12] 이종열 et al.,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슈와 정책* (서울: 조명문화사, 2013), 38-39.

C. 문헌 자료의 평론적 검토

한국 사회가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주민의 증가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다문화사회로 바뀌면서 다문화 현상과 관련된 학문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주요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는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 연구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다문화 현상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대해 서운석은 '인구사회학적-서술적(demographic-descriptive) 관점', '이념-규범적(ideological-normative)' 관점, '프로그램-정책적(program-political)' 관점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13] 그래서 나는 나의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어떤 유사한 연구들이 있었는지 학술정보통합서비스(DBpia)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해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인구사회학적-서술적 관점에서 다문화 현상 관련 선행 연구는 5 개의 박사학위 논문과 8 개의 학술 논문이 검색되었다. 검색된 논문들은 학교 교육, 부부 갈등, 가족 상담, 청소년 상담 등 연구하려는 주제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문화 사회로 바뀌는 인구 사회학적 변인을 주로 설명하였다. 이념과 규범적 관점에서는 6 개의 박사학위 논문과 9 개의 학술 논문이 검색되었다. 검색된 논문들은 대부분 다문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입법, 행정, 영주권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다. 하지만, 설한은 이론적 이념과 규범적인 면에서 다문화주의를 논하기가

---

[13] 서운석, "한국사회의 국제개방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 연령대별 비교를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vol. 6, no. 3 (August 2016): 194.

어렵다고 지적하였다.[14] 프로그램-정책적 관점에서는 천여 개의 박사학위 논문과 천여 개의 학술 논문이 검색되었다. 교육학에 한정했을 경우에는 오백여 개의 박사학위 논문과 삼백여 개의 학술 논문이 검색되었다. 대체로 아동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관한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을 분석하며 교육정책 방향 제시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처럼 일반 학계에서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이주민에 대한 사역의 방향과 교회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에 있어 충분히 연구되고 있다.

이런 토대 위에서 나의 연구 주제와 관련이 있는 다문화사회 이주민 목회에 대한 선행연구는 6 개의 박사학위 논문과 3 개의 학술 논문이 검색되었다. 정미경은 다문화사회를 향한 한국기독교 이주민 선교의 방향과 과제와 함께 다문화 사회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여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인식을 연구하였다.[15] 최권용은 교회가 이주민들을 효과적으로 전도하고 정착시키고 제자화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들을 어떻게 현지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연구하였다.[16] 이명재는 다문화가정의 이해에 관한 탐색과 사회 적응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교회가 접근해야 하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17] 한기석은 한국 다문화가정을 신학적인 의미로 조명하고, 한국교회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지역사회의 정착에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목회 실천 방안을

---

[14] 그 이유는 국가, 문화, 종교, 민족들 간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으며 다문화 개념 자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설한,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퇴조 원인 분석: 문화 개념과 규범성 문제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vol. 7, no. 1 (August 2014): 102.

[15] 정미경, “다문화사회를 향한 한국기독교 이주민선교의 방향과 과제” (ThD diss.,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0) 참조.

[16] 최권용, “사례연구를 통한 지역교회 이주민목회 방안에 관한 연구” (ThD diss.,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3) 참조.

[17] 이명재, “한국 사회 다문화 가정 문제해결을 위한 목회적 대안” (PhD diss.,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2014) 참조.

연구하였다.[18] 윤성필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 모델들을 알아보고, 한국교회 다문화 목회를 하는 교회들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선교적 리더십의 실천방안을 연구하였다.[19] 황종하는 다문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다문화 목회 유형별 특징을 바탕으로 이주민 사역의 시대 상황에 맞는 선교 패러다임 구축의 필요성 강조와 이주민 역 파송, 시니어 선교 자원 활용을 제안하였다.[20] 이수환의 학술논문인 *다문화 이주민을 위한 선교적 목회의 역할*에서는 한국교회의 선교적 목회의 역할로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 대해 포용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열린 마음, 그리고 다문화 이주민 선교를 위한 전문적인 사역자의 개발이라고 제안하였다.[21] 이주민을 위한 목회 돌봄 관련 선행연구에서 김기철은 목회 신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한국의 다문화 상황에 대한 목회 돌봄을 증진할 수 있는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였다.[22] 또한, 노원석은 돌봄 사역을 통한 교회의 다문화 이주민을 위한 목회상담적 모델을 소개하고 전반적인 목회상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23]

이상으로 나의 연구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는데, 실제 사례는 나와 같은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이 이주민을 위한 갈등 치유와 환대를 지향하는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배우고자 하는 데는 몇 가지 한계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다문화 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와 범위에서 넓은 선행 연구들이 있지만, 도시 마을에 사는

---

[18] 한기석, "한국 다문화가정의 신학형성과 목회실천 방안에 관한 연구" (PhD diss., 안양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참조.

[19] 윤성필, "다문화 목회와 선교적 리더십 개발 연구" (PhD diss.,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9) 참조.

[20] 황종하, "한국교회의 다문화 목회 유형 연구" (PhD diss., 개신대학원대학교, 2020) 참조.

[21] 이수환, "다문화 이주민을 위한 선교적 목회의 역할," *복음과 선교* vol. 30 (June 2015): 49-77.

[22] 김기철, "다문화적 돌봄을 위한 목회신학적 성찰," *신학과 세계* vol. 86 (June 2016): 147-87.

[23] 노원석, "돌봄 사역을 통한 다문화 이주민 목회상담의 원리와 방안," *개신논집* vol. 18 (September 2018): 177-97.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부족하고 연구 범위가 좁았다. 둘째, 도시 마을에서 목회자와 이주민 사이에 생기는 갈등사례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가 없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양적연구를 통해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도시 마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목회자와 이주민에 대한 실제적이며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프로젝트에서 연구하려는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이 이주민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를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이주민을 향한 목회자들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의 선행연구도 전무하였다. 이런 면에서 이주민을 향한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의 경험 및 환대 신학을 지향하는 다문화적 목회 돌봄에 대한 질적연구가 필요하다.

D. 사용할 용어 정의

1. 도시 마을 목회 and 도시 마을 교회

도시 마을 목회는 본 프로젝트에서 내가 사용하는 용어로서 농촌 마을처럼 도시 마을로 표현하여 도시 지역에서 사역하는 목사가 지역사회와 함께 목회 방향을 공감하고 사역에 있어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와 함께하며, '마을 목회'[24]를 지향하는 포괄적, 포용적인 돌봄의 목회를 말한다. 또한, 도시 마을 목회를 지향하는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는 도시 마을 교회로서 공공 신학의 입장을 가질 수 있다. 맥스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는 공공 신학을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대한 거대 담론에 관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 가치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일상생활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빈약한 철학이나 잘못된 종교에 대한 비판을 제공한다고

[24] 마을 목회는 마을을 작은 농어촌의 마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도시의 '동'과 농촌에서는 '면' 정도의 단위를 마을로 보고, 하나의 생명공동체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목회이다. 총회한국교회연구원, *마을목회매뉴얼*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8), 20.

말하였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 모두 조정하기를 원하는지에 관해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최상의 지식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안내를 주고자 하였다. 스택하우스는 이러한 공공신학함을 현재 세대만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 세대를 향한 '이웃 사랑의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25] 이는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사역하는 교회로서 도시 마을 교회가 이주민들을 향해 정립할 수 있는 다문화적 목회 돌봄에 활용되기에 적합하다.

2. 다문화적 목회 돌봄

다문화란 한 사회안에 다양한 민족과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운데 각 문화를 연결하고 서로 잘 어울리고자 하는 사회의 필요성에 의한 현상을 말한다.[26] 다문화사회는 신념과 문화 등 삶의 각 영역에서 다원성이 혼재하는 사회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다양한 가치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사회이다.[27] 다문화적 목회 돌봄은 본 프로젝트에서 내가 사용하는 용어다. 이는 도시 마을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이 위의 다문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다문화사회에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다양한 가치들을 환대 지향으로 포용하는 목회 돌봄을 말한다. 즉, 구성원들의 '차이'를 환영함으로 다양한 경계 요소들이 만들어낸 긴장 관계를 허물고 평화로운 공존을 향한 하나 됨을 실천하는 목회 돌봄이라고 볼 수 있다. '차이'를 환영하고,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환대를 지향하는 목회 돌봄으로 '다문화적 목회 돌봄'이라는 용어를 고민하며 관심을 두는 계기가

[25] 임성빈, "맥스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의 신학윤리사상과 한국교회에 주는 의미," in 문시영 et al.,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7), 58.

[26] 류성환, "세계화와 다문화," in 박흥순 et al., *시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이해교육 매뉴얼*, 62.

[27] 류성환, "세계화와 다문화," 68.

되었다.[28]

3. 타자(the other)

타자란 자기 외의 사람 또한 다른 것을 뜻하며, 동일한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다른 것을 설명하는 '자아'의 상대적 개념이다. 문성훈은 타자에 대해서 "흔히 다른 것, 즉 동일 범주로 취급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사람일 경우 나를 중심으로 나와 다른 사람, 우리를 중심으로 보면 우리와 다른 사람, 마찬가지로 남성에 대해서는 여성이, 백인종에 대해서는 유색인종이, 선주민에 대해서는 이주민이, 이성애자에게는 동성애자가 타자"라고 말한다.[29]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는 "타자란 '나'라는 개인과는 통합할 수 없는 존재, 이방인이자 낯선 신비이다"라고 말한다.[30] 즉, 타자는 개인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넘어서는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들을 향해 강남순은 타자에 대해서 "다양한 타자를 '동료 인간'으로 존중하고, 나아가 환대와 연대를 나누는 '포용의 원'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한다.[31] 이러한 의미에서 강남순은 타자에 대한 '연민적 시선'을 말하며 "타자를 자신과 무관한 존재가 아닌, 자신이 배려하고 책임지고 연대해야 할 존재"로 본다. 본 프로젝트에서 타자는 이주민들이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

[28] 다문화적 목회 돌봄은 본질적으로 대리적인 '하나님의 돌봄'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변의 낯선 이주민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상처를 치료하는 사역이며, 또한 그들과 함께 하며 지속적인 돌봄을 통해 범위를 교회 안으로 한정시키기보다는 더 큰 영역으로 확장해 나아가는 돌봄이다. 김기철, "*다문화적 돌봄을 위한 목회신학적 성찰*," 149-50.

[29] 문성훈, "타자에 대한 책임, 관용, 환대 그리고 인정," *사회와철학연구회* no. 21 (April 2011): 392.

[30] Emmanuel Levinas, *Le Temps et L'autre 시간과 타자,* trans. 강영안 (서울: 문예출판사, 1996), 85.

[31]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21세기 영구적 평화를 찾아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13.

차별과 배제 없이 배려하고 책임지고 연대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다.

4.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는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과 문화와 제국주의(Culture and Imperialism)를 그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이후로 호미 바바(Homi K. Bhabha)의 이론이 중심 담론이 되었고, 프란츠 파농(Frantz Omar Fanon)이 재해석하였다. 그리고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 Spivak)을 위시하여 이론의 지형을 새롭게 만드는 장을 형성하게 되었다.[32]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는 식민 지배의 사회, 문화적 영향력을 뜻한다. 탈식민주의는 종래의 식민주의와 단절을 의미하고, 후기 식민주의는 식민주의의 연장을 뜻한다. 각각 두 용어를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하지만, 본 프로젝트에서는 양자의 의미를 두고 '탈식민주의'의 단어를 사용하였다.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는 비유럽 지역의 식민화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이용되었는데, 태혜숙은 "한국은 식민지 근대의 명목하에 일제 제국주의의 타자화를 경험하였다"고 말한다.[33] 이는 타자화를 경험했던 후손으로서 이주민들이 도시 마을에서 타자화를 경험하는 상황에 대하여 비교하고 활용되기에 적합하다.

5. 환대(Hospitality)

환대(Hospitality)는 휴식과 음식 문화와 관계가 있으며,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는 뜻이다. 정경호는 환대에 대해서 "손님이나 주인 또는 낯선 이방인을 너그럽게

---

[32] 고정갑희, "탈식민주의의 저항전략과 페미니즘," *젠더와 문화* vol. 4, no. 1 (June 2011): 168.

[33] 태혜숙, *한국의 탈식민 페미니즘과 지식생산*, 2nd ed. (서울: 문학과학사, 2006), 299.

접대하며, 편안한 휴식 자리를 제공하면서 음식을 대접한다"라고 말한다.[34]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환대를 실천하였으며, 예수는 낯선 이방인, 어린이, 과부, 병자, 몸 파는 여인 등 다양한 이유에서 사회적으로 주류 공동체의 외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약자들을 치유하고 식탁 공동체를 베푸는 무한 환대의 사역이 공생애의 주된 주제였다.[35] 레티 러셀(Letty M. Russell)은 포스트콜로니얼 담론의 관점에서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쪽 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의식을 치료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하나님의 행동들에 참여하기 위해 차이를 넘어 접촉함으로써 하나님의 환영하심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36] 이주민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역사들과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현재의 관계에서 환대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환대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심층적으로 체계화한 학자이다. 그는 "환대를 '초대의 환대'와 '방문의 환대'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무조건적인 환대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무조건적인 환대란 손님으로 '도착하는 이'의 신분증명서나 그들의 법적 상태 또는 정체성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얼굴' 하나로만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환영하는 것이다.[37]

강남순은 예수의 시선으로써 코즈모폴리턴 환대는 '절대적 환대' 또는 '방문의 환대'라고 정의하며 "진정한 환대란 환대의 과정에서 주인과 손님의 경계를 홀연히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그 환대를 통하여 전적인 '삶의 긍정'의 경험이 일어나는 '삶-긍정의 사건'이 바로 진정한

---

[34] 정경호, "낯선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대의 밥상," *기독교사상* vol. 657, no. 9 (September 2013): 81.

[35] 김혜령, "초대의 환대와 방문의 환대," *제 3 시대* vol. 92 (September 2016): 7.

[36]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56.

[37]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96.

환대"라고 설명한다.[38] 환대의 개념은 이처럼 자아와 타자와의 간격을 좁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에서 환대는 이주민들을 향해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정립할 수 있는 목회 돌봄의 요소라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6. 코즈모폴리터니즘(Cosmopolitanism)

코즈모폴리터니즘(Cosmopolitanism)은 우주 전체의 질서, 보편적 질서를 의미하는 '코스모(cosmo)'와 지역적 도시국가를 의미하는 '폴리스(polis)'가 결합한 개념으로, 제한된 경계를 뛰어넘는다는 의미가 있다.[39] 강남순은 코즈모폴리터니즘 담론의 철학적 기원은 그리스 철학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리스 철학자들에 의한 '코즈모폴리턴' 개념은 세계시민, 코스모스의 시민, 그리고 우주의 시민으로 번역하여 쓰고 있는데, '코스모스의 시민(Citizen of the cosmos)'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4 세기 그리스에서 '코스모스(cosmos)'는 '우주(universe)'에 가득 찬 온전한 힘을 담은 공간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이다.[40] 그러면서 강남순은 코즈모폴리턴 담론에 대해 말하기를 "모든 개별인이 사회정치적,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다 함께 이 우주에 소속된 시민이라는 점을 우리의 환대, 연대, 정의, 그리고 이웃 사랑의 근거로 삼는다"고 말한다.[41] 본 프로젝트에서 코즈모폴리터니즘은 이주민과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며 사람이라는 존재가 '함께-존재'임을 인식하고,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가 타자를 보는 시선이 외면과 무관심에서 따스함으로 바뀌게 되는 점에서

---

[38] 강남순, 192.

[39] 송인재, "근현대 중국 코즈모폴리터니즘에 대한 고찰," *인문사회* 21 vol. 8, no. 6 (December 2017): 518.

[40]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81.

[41] 강남순, 159.

도움이 된다.

E. 청중

본 프로젝트의 주된 청중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청중은 이주민들에게 관심이 있는 나 자신을 포함한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교역자이다. 목회 현장에서 교역자가 이주민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본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이주민들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이주민들에 대한 다문화적 목회 돌봄의 이론과 실천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청중은 목사가 섬기는 교회의 교인들이다. 도시 마을에 함께 거주하는 교인들은 도시 생활에 대한 안내자 및 상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들이 목사와 함께 어떻게 이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지 미리 경험해 보기를 바란다. 세 번째 청중은 도시 마을 안에 있는 모든 이주민이다. 어려운 처지와 환경에서 이주하여 사는 이주민들이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를 통해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며, 그 공간이 되는 도시 마을에 속한 교회를 알고 적극적으로 교회에 참여하여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치유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F.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1. 연구의 범위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바뀌어 가면서, 앞으로 자신의 본국을 떠나 한국 도시 마을에 이주하여 살아가는 이주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도시 마을에서 이주민들은 이미 타자화(othering)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나는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40 대 목사는 현 상황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또한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40 대 목사가 예수의 가르침인 환대에 입각한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성찰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본 연구의 시작점이었다. 나는 본 연구를 이주민들을 도시 마을이나 섬기는 교회에서 대면할 기회가 있었던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40 대 목사를 대상으로 하고 환대 지향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과 다문화 이해교육을 제시할 것이다.

2. 제한성

대안으로 제시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은 각 도시 마을의 교회마다 일정과 교육 과정 그리고 프로그램이 상이할 수도 있다. 또한,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면담 대상자들은 모집 과정에서 여성 목사들[42]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본인과 비슷한 40 대 남성 면담 대상자들만 모집하였다.

한국 사회에서의 이주민은 노동과 혼인과 학업을 위해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과 정치적 이유와 종교적 이유로 난민이 되어 이주해 온 사람들 그리고 그 자녀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즉, 노동으로 이주한 이주노동자, 혼인으로 이주한 혼인이주민, 학업으로 이주한 유학생,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 이주민 자녀, 난민, 단기 체류와 방문,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이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이주민 등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이 있다.[43] 이주민은 다양한 유형과 형태로 분류하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만난 이주민이나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주민을 경험하는 상황은 다양할 수 있다.

---

[42] 이유에 대해서 본 프로젝트 23 쪽, 각주 52 를 참고하라.

[43] 박흥순, "이주민 이해," in 권현희 et al., *시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이해교육 매뉴얼* (광주: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2018), 38.

G. 독창성과 공헌

이주민에 관한 주요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는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다문화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 연구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주민을 위한 목회와 교회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수 존재하나 주로 선교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다문화 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와 범위에서 넓은 선행 연구들이 있지만, 도시 지역에 사는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부족하고 연구의 범위가 좁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양적연구를 통해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40 대 목사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설명하기 위해 이주민을 포스트콜로니얼 담론에 따라 분석하고, 실천적인 방안으로는 환대를 지향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종과 지역, 그리고 성별을 떠나서 모두 하나님의 동등한 피조물이다. 따라서 차별과 배제는 사라져야 한다. 본 프로젝트는 이런 맥락에서 도시 마을에서 타자화를 경험하고 있는 이주민을 향한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실천하며,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를 포함하여 사역하는 교회의 교인들, 그리고 이주민들이 상호의존을 통해 새로운 변혁이 나타남으로써 사회적인 공헌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가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하여 사역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주민을 무조건 포용하여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평화와 환대의 공간'으로 새로운 변혁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Chapter Ⅱ

질적 연구 방법 및 절차
(The Method and Procedur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A. 연구 방법: 근거이론 적용

나는 본 프로젝트에서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이주민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떠한 목회 돌봄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목회자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나는 다문화라는 사회 현상이 도시 마을 목회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근거들을 탐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근거이론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이 갈등의 상황을 치유하고 변혁하기 위한 다문화 사회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목회자로서 이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신학과 목회 돌봄의 실천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필요함을 질적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다.

1. 질적연구란?

나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질적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절적연구란 행위자들이 어떠한 종류의 사회 현상을 어떠한 가치와 가정을 바탕으로 낱낱의 사람 경험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방법이다.[44] 질적연구는 연구자가 아닌 내부자적 관점에서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행하는지를 찾고 기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살아있는 경험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들의 삶으로부터 어떠한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질적연구는 인종, 민족, 문화로 타자화된 관계를 지양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탈식민주의 담론과 아주 가깝게

[44]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2nd ed. (서울: 박영사, 2018), 28.

마주하고 있다. 또한, 질적연구는 단편적인 경험만을 분석하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그 맥락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행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현장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나 이론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질적연구는 이주민을 경험한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사는 현장을 관찰한다. 따라서 논리 실증주의에 근거하여 객관적 실재를 가정하는 양적 연구로는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질적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2. 근거이론

나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질적연구 방법 중에서 근거이론을 적용하였다. 근거이론은 실제적인 사회 현상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추상적인 이론을 찾아내는 연구방식이다. 근거이론은 1967 년 미국의 바니 글레이저(Barney G. Glaser)와 안셀름 스트라우스(Anselm L. Strauss)가 저술한 '*근거이론의 발견*'이라는 책을 통해 알려졌다. 책이 출판된 후에 서로 다른 철학적 배경과 전통에서 오는 관점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했지만, 1990 년대에 들어와서 서로 함께 근거이론을 정교화하는 데 공헌하였다.[45] 김영천이 말한 근거이론의 특징은 이론 형성을 위한 사물의 이해하는 방식을 '귀납적 접근'으로 설명하면서 "사람들의 행위 혹은 사회현상이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그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의 근거를

[45] 오세경, "근거이론: 광산에서 보석캐기," in *질적연구의 즐거움,* ed. 김영순 (서울: 창지사, 2018), 306.

탐구할 때 근거이론은 적절한 연구방법”[46]이라고 말한 것처럼 나는 다문화라는 사회 현상이 도시 마을 목회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근거들을 탐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근거이론을 적용하였다. 또한, 근거이론은 창시자였던 글레이저(Glaser)와 스트라우스(Straus)가 실증주의와 실용주의로 관점이 다르게 되면서 그 이론에서도 연구방법이 다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연구자들은 각각 연구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연구방법을 선택함으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이론’이라는 이론적 관점을 가질 수 있었다.[47]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이론’이란 사회학자 조지 미드(George Herbert Mead)에 의해서 체계화된 이론으로, 인간은 상징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하고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질적연구는 귀납적 접근을 통해 어떤 근거들을 이론화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가 타자의 관점에서 자신과 사회를 관찰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나는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 자료 수집을 위한 심층 면담을 했다. 심층 면담이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와 라포(rapport)[48]를 형성한 후 심층 면담을 했으며, 그들의 삶을 통해 이주민을 경험한 도시 마을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이 어떤 목회 돌봄을 했는지를 내부자적

[46]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Ⅱ: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349.

[47] 박승민, “근거이론,” in *질적연구: 열다섯가지 접근,* ed. 김영천 and 이현철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7), 201-03.

[48] 라포(rapport)는 심리학적 용어로, “연구자가 단순하게 연구 대상자의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유대 또는 심리적 공감을 형성하여 연구 참여자와 밀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나는 연구 참여자들과 학부와 대학원에서 함께 학업을 했으며, 현재 나와 같은 감리교 소속 목사로서 평소에 전화와 SNS 로 밀접한 인간관계를 유지했었다.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Ⅰ: Bricoleur*, 2nd ed.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388.

입장에서 공감함으로써 파악하는 연구방법이다.[49] 더불어 면담기법으로 '반구조화된 면담'[50]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면담 가이드를 작성하여 실시하였다. 본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반구조화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번호	질문 내용
1	이주민에게 도시 마을 교회는 그들의 문화를 어떻게 인정하는 공간인가요?
2	이주민이 도시 마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어떠한 이유였나요? 방문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3	도시 마을 교회에서 이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직분자는 주로 누구일까요?
4	이주민이 도시 마을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5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 오기 전, 이주민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6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 오기 전, 이주민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7	이주민을 위해서 어떤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했나요?
8	이주민이 도시 마을 교회에서 어떤 환대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9	이주민을 상담한 적이 있다면, 기억에 남는 사례를 알려 줄 수 있나요?
10	이주민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신앙의 도움을 주셨나요? 그 도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11	상담을 하면서 후회가 되는 부분이나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2	현재 한국 사회에 이주민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3	소속 교단이나 기타 기관에서 이주민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14	현재 섬기는 도시 마을 교회에서 이주민의 주제에 관련하여 설교나 강의, 교육 커리큘럼을 진행해 본 적이 있나요?
15	이주민을 위해 별도의 교회의 공간을 마련해 본 적이 있나요?
16	선주민 성도들에게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49]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Ⅳ: Case Studies* (경기도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562.

[50] "반구조화된 면담은 연구자가 만든 가이드에 의해 면담을 진행하되 면담자가 범할 수 있는 면담상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배제한 면담형식이다. 그래서 면담자가 미리 준비한 일연의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질문을 한 다음 좀 더 풍성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더 깊이 피면담자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면담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Ⅰ: Bricoleur*, 326.

17	목사님은 도시 마을에서 이주민들과 함께 상생하기 위한 도시 마을 교회의 사역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위의 질문을 진행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인 도시 마을 교회의 목사들에 대한 나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심층면담에서 선행될 '판단중지(epoché)' 내용은 다음과 같다.[51]

번호	판단중지 내용
1	도시 마을 교회의 목사들은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고 상담을 통해 갈등과 고민을 해소할 업무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이주민에 대하여 사명감이 분명할 것이다.
2	도시 마을 교회의 목사들은 이주민들에게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다.
3	도시 마을 교회의 목사들은 인종과 언어의 이해 수준과 상관없이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수행할 것이다.
4	도시 마을 교회의 목사들은 이주민들을 위한 특별예배 및 교육을 많이 할 것이다.
5	도시 마을 교회의 목사들은 언제든지 이주민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을 것이다.
6	도시 마을 교회의 목사들은 이주민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으며 대처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7	도시 마을 교회의 목사들은 이주민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많으며 대처와 준비가 잘 되었을 것이다.
8	도시 마을 교회의 목사들은 이주민들에 대한 공감과 소통이 항상 자연스러울 것이다.

B. 연구 참여자 선정

나는 질적 연구를 위해 도시 마을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40 대 목사 중에서 목회 경력 10 년 차 이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 이유는 나와 목회 경력이 비슷한 목사들이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이주민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떠한 목회 돌봄을 하는 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선정하게

[51] "판단중지(epoché)는 후설이 가정으로부터의 해방, 판단정지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그리스어로, 멀리 떨어뜨려 놓음 혹은 억누름을 뜻하는 말이다. 이는 우리말로 흔히 판단 중지라고 일컬어지는데 판단을 중지한다는 것의 의미는 말 그대로 그것에 긍정 혹은 부정과 같은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에 대해 그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으면서 그 믿음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다."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Ⅱ: Methods*, 95.

되었다. 전화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이들 중 6 명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이들을 선정하였다. 그들은 모두 남성 목사이고, 학력은 신학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다. 여성 목사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자 노력했으나 도시 마을에서 목회하고 있으며, 목회 경력이 10 년 이상의 40 대 여성 목사를 찾아 연락하거나 만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연구 참여자에 여성 목사는 선정할 수 없었다.[52]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는 동의서(부록 A 참고)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와 관련한 조항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였다. 동의서에는 담당 교수의 연락처와 학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의문점이 있을 때마다 학교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는 연구 참여자들의 비밀보장과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에 대하여 가명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참여자에 관해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익명을 사용함으로써 보호하였고, 참여자의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신상기록을 제한하여 기술하였다.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들이 진솔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어서, 윤리성 확보를 위해 개인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내용의 윤리서약을 동의서에 포함하였다.

연구를 위해 인터뷰한 내용은 윤리서약대로 연구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보안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연구를 위해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지만 연구에

---

[52] 한국교회가 여성목사 1 만명 시대를 열었지만 전체 목회자 10 명 중 여목사는 1 명 수준에 불과하다. 기독교에서 여성목사가 증가하는 현상은 지속적인 남녀평등 현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목사 안수를 받더라도 교회 청빙을 못받는 경우도 있으며,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남성 목사에 비해 보수를 적게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임신과 출산 등의 이유로 목회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에 본인은 한국 도시 마을 교회에서 목회 경력 10 년 이상의 40 대 여성목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유영대, "여목사 1 만명시대... 여전한 유리천장," *국민일보*, January 15, 201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1340.

사용한 후, 연구가 종료되면 파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연구 결과가 출판되거나 학술대회에서 토론될 때 연구 참여자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 어떤 정보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교육적인 목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사진, 비디오, 녹음 등이 사용된다면 연구 참여자의 신분은 보호되거나 가명을 사용하게 될 것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인터뷰를 참여하는 참여자는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을 거절할 수 있고,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인지하도록 설명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연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교회 밖에서 진행하였다. 면담 시간은 연구 참여자가 선택한 시간으로 미리 약속을 잡아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와 권익을 보호하고 윤리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 윤리 심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승인번호:2020-006)을 얻어 연구 절차를 진행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목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파악하는데 연구자료로 사용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면담 장소는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들의 각 목양실에서 할 것이며, 대면하기가 쉽지 않을 경우 전화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것임을 연구참여자들에게 알렸다.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사항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한국 도시 마을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40 대 목사 중에서 목회 경력 10 년 차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나와 목회 경력이 비슷한 목사들이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이주민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떠한 목회 돌봄을 하는 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선정하게 되었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

	나이	목회 경력	성별	학력
연구참여자 A	47 세	15 년차	남성	신학대학원 졸업
연구참여자 B	47 세	16 년차	남성	신학대학원 졸업
연구참여자 C	45 세	15 년차	남성	신학대학원 졸업
연구참여자 D	45 세	14 년차	남성	신학대학원 졸업
연구참여자 E	43 세	12 년차	남성	신학대학원 졸업
연구참여자 F	42 세	11 년차	남성	신학대학원 졸업

C. 연구 진행 과정

나는 인터뷰에 동의한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을 2020 년 11 월 23 일부터 29 일까지 진행하였으며, 모두 면담을 시작하면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이후 녹음과 함께 면담을 하였다. 녹음된 내용을 모두 타이핑한 필사 자료와 면담하면서 작성했던 메모를 자료로 생성하고, 면담 진행과 함께 동시에 근거이론 방법의 특성상 자료 분석을 행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근거이론 방법 중에서도 안셀름 스트라우스(Anselm L. Strauss)와 줄리엣 코빈(Juliet M. Corbin)의 근거이론 분석 절차를 사용했다.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이론방법'에서는 "자료를 분석할 때 서술, 개념 정리, 이론화의 과정을 거쳐 3 단계 코딩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 과정은 개방 코딩(open coding), 두 번째 과정은 축 코딩(axial coding), 세 번째 과정은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이다.[53]

[53] 오세경, "근거이론: 광산에서 보석캐기," 314.

첫 번째 개방 코딩(open coding)은 자료를 미시적(microscopically)으로 '해체'하고, 그 현상들의 이름을 붙여 '개념화'하고, 그 개념들을 하위 범주로 통합하여 '범주화'하는 과정이다.[54] 그런 다음 범주의 특성을 의미하는 속성(properties)과 속성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차원(dimensions)을 발견하여 범주를 발전시킨다.[55] 본 프로젝트에서는 이주민을 경험한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의 인식이나 목회 돌봄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개념을 명명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비교방법으로 동일한 현상으로 보이는 개념들을 하나로 묶는 범주화를 진행할 것이며, 모든 연구대상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현상을 분류하여 범주화할 것이다.

두 번째 축 코딩(axial coding)은 개방 코딩을 통해 분해된 자료 및 범주들을 재조합하는 과정이다.[56] 본 프로젝트에서는 범주분석으로 '코딩 패러다임(coding paradigm)'의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개방 코딩에서 발견한 범주들을 새롭게 연결해서 도식을 만드는 단계이다.[57] 코딩 패러다임에는 "중심현상(phenomenon),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 결과(consequences)"가 있다.[58] "중심현상(phenomenon)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답하는 것이고,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은 그 현상을 발생시키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조건을 의미하고,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은

---

[54] 박승민, "근거이론," 213.
[55]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Ⅱ: Methods*, 376.
[56] 김영천, 379.
[57] 오세경, "근거이론: 광산에서 보석캐기," 315.
[58] 오세경, 315.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또는 맥락을 의미하며,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은 연구참여자들이 일상적으로 쟁점이나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은 작용/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조건이며, 결과(consequences)는 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 그리고 결과의 모형"이다.[59]

세 번째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은 최종적인 단계로 범주 중에서 핵심범주(core category)를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야기의 윤곽'을 형성하여 이론적 포화상태(theoretical saturation)를 생성한다.[60] 본 프로젝트는 범주화된 도시 마을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40 대 목사들의 경험을 선택 코딩하여 이론적으로 핵심범주를 찾아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심층 면담한 내용을 이야기 개요 작성, 이야기 재작성, 범주 간의 관계 시각화, 관계 검토와 정리 등의 선택 코딩을 위한 4 가지 기법을 사용할 것이다.[61]

이렇게 3 단계의 코딩을 거치는 과정에서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그리고 윤리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서 나는 녹음된 면담 내용을 모두 필사하고 연구 참여자들에게 정리한 것을 읽어주어 정확하게 기록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면담 진행과 코딩은 더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 없는 '이론적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연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논문 지도교수의 심의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자료들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가 없도록 보안 동의서에 서약한 이에게만 필사를 부탁하였다. 면담 내용에서 특정 인물이나 구체적인 상황과 날짜에 대해서는

---

[59]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Ⅱ: Methods*, 379-80.
[60] 김영천, 383.
[61] 김영천, 384-85.

00 으로 표기하여 익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연구자료들은 컴퓨터에 저장할 때 파일에 비밀번호를 걸어 보안을 강화했다.

D. 연구 결과

1. Open Coding (개방 코딩)

문장과 의미 단위로 코딩한 초기값의 인터뷰 자료를 여러 차례 읽으면서 개념들을 구분하고, 연관된 개념들을 하위범주로 포함시켜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개방 코딩 결과 총 57 개의 개념, 19 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9 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어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근거한 축 코딩을 통하여, 개방 코딩으로부터 도출된 개념과 범주들을 찾아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 개방 코딩의 결과

<table>
<tr><th>개념</th><th>하위 범주</th><th>범주</th><th>패러다임 요소</th></tr>
<tr><td>이주민의 문화 이해
상투적인 개념 이해</td><td>다문화 교육의 부족</td><td rowspan="2">이주민에 대한 경험과
인식 부족</td><td rowspan="5">인과적 조건</td></tr>
<tr><td>소수의 이주민
다수의 비기독교인의 이주민
한국성도와 결혼</td><td>지역의 영향</td></tr>
<tr><td>교회의 가족
복음 대상
교제의 공간
선교적 기대감</td><td>사역의 방향</td><td rowspan="3">복합적인 가치관
형성의 배경</td></tr>
<tr><td>이주민 종업원과의 만남
선교사 지원자의 만남</td><td>이주민에 대한
직접 경험</td></tr>
<tr><td>이주민 초청 행사
이주민 자발적 교회 방문</td><td>교회의 환대 경험</td></tr>
<tr><td>이주민 목회 판단
부족한 이주민 목회 경험
다중 언어의 전문성 부족</td><td>이주민에 대한
목회경험 부족</td><td rowspan="2">이주민에 대한 무관심</td><td rowspan="2">중심현상</td></tr>
<tr><td>일상에서 생각하지 않음
다양한 생각
이주민 관련 교육 활용 부족</td><td>이주민에 대한
가치관 정립 부족</td></tr>
</table>

문화적 배경 이해 부족 소수에 대한 관심 부족 자발적인 교류 부족	이주민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 부족	이주민을 향한 목회 돌봄 준비 부족	맥락적 조건
교회 공간의 부족 이주민 쉼터 부족 상담 시간의 부족	다양성 배려를 인식하지 못함		
생활 보장 격려와 위로	상담적 조언	신앙 상담 활용	중재적 조건
기도해 주기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신앙 상담적 조언		
성서 관점 제시 복음 관점 제시 전도 관점 제시 소그룹 활동 제시 사명 제시	위로보다 기준 제시	목회 돌봄에 대해 닫힌 인식과 형식적 대처	작용/상호 작용
평신도에게 맡김 전도사에게 맡김 이주민 전문사역자에게 맡김 직장을 위한 사업자에게 맡김	떠넘기기		
예배 참여 권유 목회자 경험 반영	목회 돌봄 활동	복음 제시에 그침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소개		
문턱 낮추기 이해와 배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치관이나 문화의 차이 공유 이중언어 노력 포기	소극적인 상담	이주민을 향한 관계 개선의 노력 부족과 다문화 이해교육 부족	결과
이주민 기독교교육 필요성만 인식 이주민 신앙생활 필요성 강조 다문화 이해교육 필요성 강조 목회돌봄을 적용할 수 없는 아쉬움 타의적인 개선 의지	개선에 대한 미흡한 자각		
생활보장 상담 진정성 부족 돌봄의 노력 부족	지속적이지 못한 돌봄	돌봄의 노력 부족과 타자화 이해 부족	
생존에 대한 심리적 위축 방치 고립 상태 방치	타자화 방치		

2. Axial Coding (축 코딩)

면담자료들에 대한 비교분석으로 추출한 개방 코딩 과정을 통해 구성된 9 개의 범주 결과를 근거이론 코딩 패러다임(coding paradigm)에 따라 재조직한 축 코딩의 결과는 아래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축 코딩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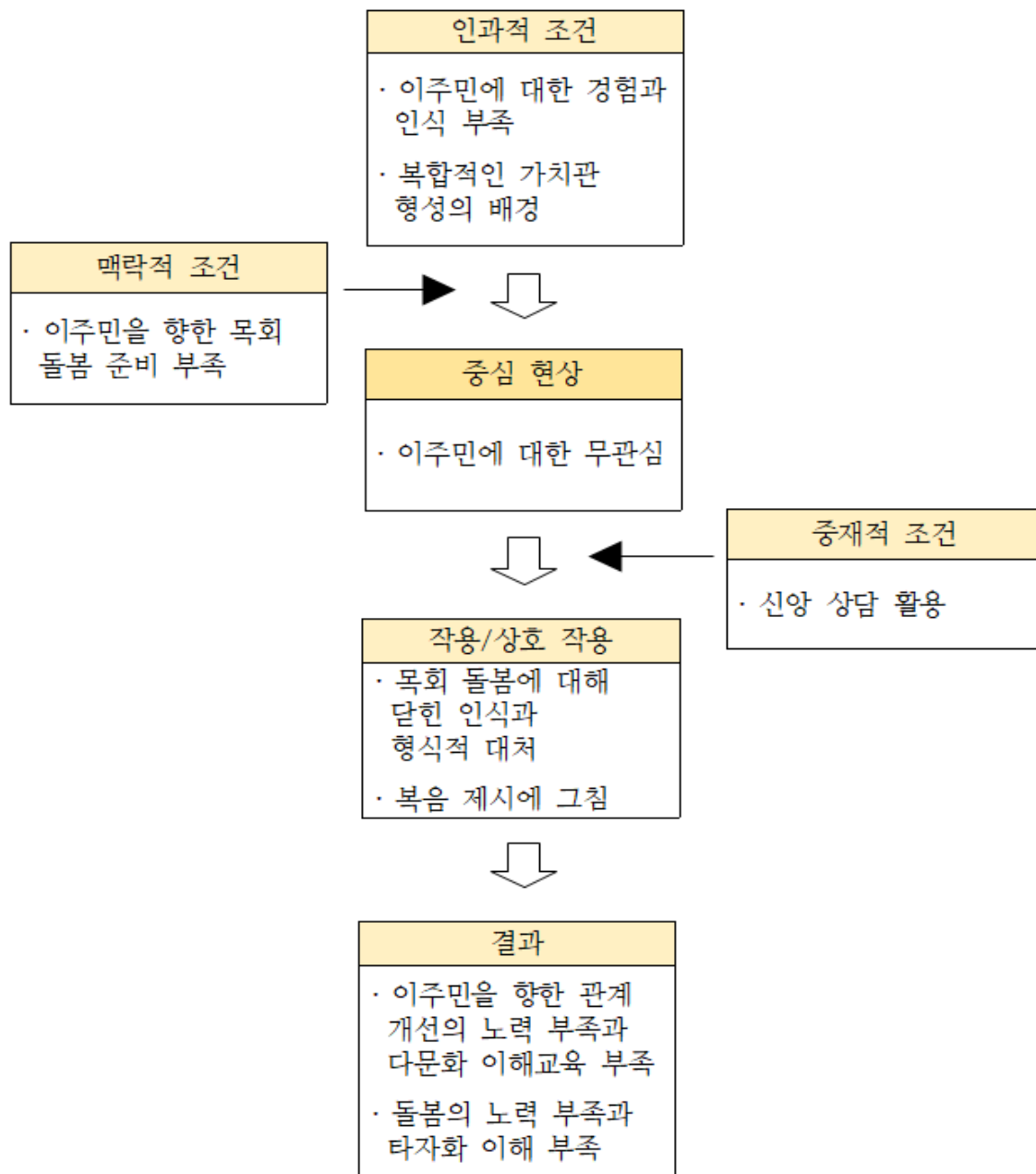
인과적 조건
· 이주민에 대한 경험과 인식 부족
· 복합적인 가치관 형성의 배경

맥락적 조건
· 이주민을 향한 목회 돌봄 준비 부족

중심 현상
· 이주민에 대한 무관심

중재적 조건
· 신앙 상담 활용

작용/상호 작용
· 목회 돌봄에 대해 닫힌 인식과 형식적 대처
· 복음 제시에 그침

결과
· 이주민을 향한 관계 개선의 노력 부족과 다문화 이해교육 부족
· 돌봄의 노력 부족과 타자화 이해 부족

인과적 조건은 중심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범주들을 연결지어 구성하였다. 인과적 조건의 범주는 '이주민에 대한 경험과 인식 부족'과 '복합적인 가치관 형성의 배경'으로 보았다. 이러한 범주들을 도출하게 된 연구 참여자들의 대표적인 언급은 다음과 같다:

[이주민에 대한 경험과 인식 부족]

> *(연구참여자 F):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돌보려고 한 적은 없었어요. 교회에서 눈에 보이면 관심을 가졌어요. 이주민에 대해서 고민한 적도 없었으며, 이주민의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기 보다는 성도로서 교회의 일원으로만 받아들였어요.*

[복합적인 가치관 형성의 배경]

> *(연구참여자 D): 도시 마을에 있는 대학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다문화 부부 유학생 경험을 많이 한 교수님을 만난적이 있어요. 그 교수님은 크리스천이라서 특별히 부부학생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가까운 지역교회에 갈 수 있도록 했어요. 하지만, 교회에 모두 적응을 못했다고 해요. 이와 같은 일들이 몇 년에 걸쳐 일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 교수님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겸했고,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다문화 신앙공동체가 만들어 졌다고 해요. 그 교수님은 다문화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을 경험했으며, 편하게 만나서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하면서 위로해 주면 신앙에 대한 매력에 빠져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목회 현장에서 처음 교회에 방문한 이주민에게 교수님과 비슷하게 시도했으나 마음에 여유도 없고, 일주일에 한번 성경공부 하기도 어려웠어요.*

중심 현상은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으로 작용/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되는 사건이다. 이주민에 대한 목회 돌봄 과정에서 '이주민에 대한 무관심'을 중심 현상에 놓았다. 그리고 이 무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조건과 맥락, 중심현상으로부터 작용/상호작용, 이에 개입되는 중재적 조건, 그리고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로 연결되는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주민에 대한 무관심'의 중심 현상이 발생하도록 이끄는 일들이나 사건을 의미하는 인과적 조건으로는 '이주민에 대한 경험과 인식 부족', '복합적인 가치관 형성의 배경'이 주요

범주로 나타났다. 중심 현상의 범주를 도출하게 된 연구 참여자들의 대표적인 언급은 다음과 같다:

[이주민에 대한 무관심]

(연구참여자 A): 그 동안에 별 관심은 없었지만, 생각해보니까 베트남에서 오신 한 여성 분이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네요. 남편은 한국인이고, 결혼을 위해서 한국에 왔었다고 했어요. 교회에 온 이유는 적응과 생활 그리고 언어의 적응을 위해서 왔었다고 했어요. 인터뷰하기 전에는 전혀 생각 못했는데,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맥락적 조건은 중심 현상에 영향을 끼치거나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이나 상황을 의미한다. '이주민을 향한 목회 돌봄 준비 부족'을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으로 간주하였다. 맥락적 조건의 범주를 도출하게 된 연구 참여자들의 대표적인 언급은 다음과 같다:

[이주민을 향한 목회 돌봄 준비 부족]

(연구참여자 A): 이주민은 '원하는 것이 있구나'하는 생각을 했으며, 언어, 교제, 공동체 등의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그들을 도와줘야 할 필요성을 생각만 했어요.

(연구참여자 E):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주민에 대해서는 여행객으로 생각했으며,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받는 차별 대우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에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중재적 조건은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중심 현상의 강도를 심화 또는 완화하거나 변화를 유도하는 조건으로서 작용/상호작용을 방해하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중심현상에 대해서 '신앙 상담 활용'은 작용/상호작용을 억제하거나 촉진하는 조건이므로 중재적 조건으로 연결하였다. 중재적 조건의 범주를 도출하게 된 연구 참여자들의 대표적인 언급은 다음과 같다:

[신앙 상담 활용]

(연구참여자 B): 일자리를 찾아서 한국에 온 중국 청년이 교회에 와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청년은 직장 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했으며, 언어 소통이 가장 힘들다고 했어요. 자기의 생각들을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돕는 방법이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사랑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적응을 잘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라고 어려움을 들어주고 기도해 주었어요.

작용/상호작용은 연구 참여자들이 마주치는 상황 속에서 문제와 논쟁을 다루는 일상적 혹은 전략적 대응을 말한다. 본 프로젝트에서 작용/상호작용은 이주민에 대한 무관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대응을 위해 선택한 행위로, '목회 돌봄에 대해 닫힌 인식과 형식적 대처', '복음 제시에 그침'의 하위차원들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의 범주를 도출하게 된 연구 참여자들의 대표적인 언급은 다음과 같다:

[목회 돌봄에 대해 닫힌 인식과 형식적 대처]

(연구참여자 D): 이주민에 대하여 설교시간에 선포한 적은 없어요. 선주민 성도들에게 이주민을 향한 설교를 한적도 없어요. 다만, 성도들 중에 국제 결혼한 남편과 아내분들이 함께 주일 예배 시간에 오면 따로 5분 동안 핵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영어 설교를 해 본적이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이고 전문성이 없다는 생각에 몇 주하고 그만두었으며, 예배 후에 인사만 했어요.

[복음 제시에 그침]

(연구참여자 C): 전도축제 기간에 장로님이 이주민을 전도한 적이 있어요.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아주 쉽게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교회에 힘들면 찾아와도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결과는 작용/상호작용을 거쳐 나타나게 된 중심 현상의 변화와 양상의 총체를 의미한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이주민을 향한 관계 개선의 노력 부족과 다문화 이해교육 부족'과 '돌봄의 노력 부족과 타자화 이해 부족'을 지표로 보았다. 결과의 범주를 도출하게 된 연구 참여자들의 대표적인 언급은 다음과 같다:

[이주민을 향한 관계 개선의 노력 부족과 다문화 이해교육 부족]

(연구참여자 A):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은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경험을 한적이 없어요. 선주민 성도들과 어떻게 해야할 지 잘 모르겠어요. 이주민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지 생각해 본적은 없어요.

[돌봄의 노력 부족과 타자화 이해 부족]

(연구참여자 D): 노방 전도하다가 파키스탄 이주민을 만난적이 있어요. 부담 없이 교회에 와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왔지만, 실제적으로 이해해주고, 배려해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그 이후에는 오지 않았고, 다시는 만날 수 없었어요.

나는 이처럼 패러다임과 범주의 연결 작업을 하기 위해 6 명의 연구참여자에게서 드러나는 공통된 현상을 찾는 데 집중하였다. 면담하면서 받았던 느낌과 메모, 그리고 필사본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야기들 속에서 이주민이 도시 마을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목회 돌봄 경험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주민을 향한 목회 돌봄이나 소재를 물으면, 한참 생각한 후에 대답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으며, 면담 후에 소감을 이야기하는 시간에는 6 명 모두가 면담을 통하여 비로소 이주민을 향한 목회 돌봄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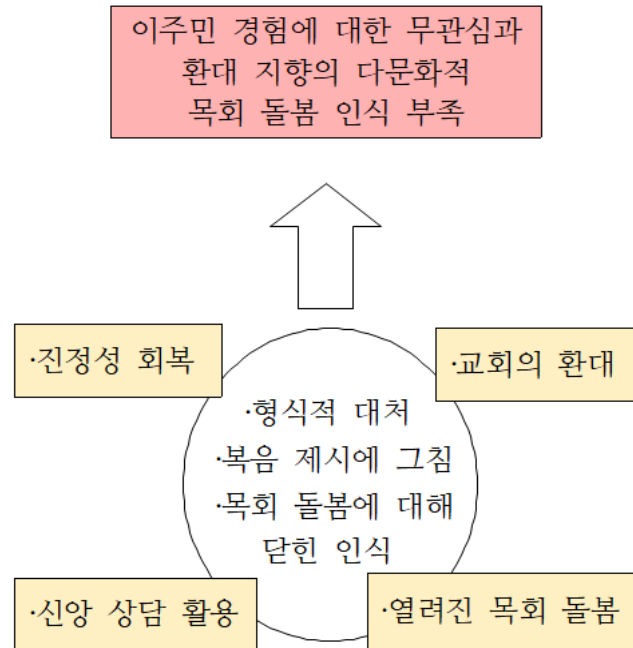
3. Selective Coding (선택 코딩)

선택 코딩은 코딩의 마지막 단계로서 개방 코딩에서 생성된 개념과 하위범주 구조분석을 통해 드러난 관계를 연관 지어 이론을 통합하는 단계이다.[62] 이를 위해 선택 코딩은 핵심범주(Core category)의 의미를 대변하여 의미를 단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62]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Ⅱ: Methods*, 384.

연구 참여자들은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이 이주민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떠한 목회 돌봄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로서 이를 통합하는 연구의 핵심범주는 ‘이주민 경험에 대한 무관심과 환대 지향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 인식 부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주민 경험에 대한 무관심의 재현이 다문화사회의 현상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인식해야 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무관심은 이주민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내재한 우월감이 이분법적 구조로 내재한 한국식 오리엔탈리즘으로 재현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주민을 이해하기에 다양한 제약의 요소들이 있었다. 그 중 ‘다문화 이해교육의 부실’은 6 명의 연구 참여자들 모두가 공통으로 겪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바쁜 목회 활동으로 인해 이주민을 향한 지속적인 목회 돌봄을 지속해서 하지 못했다. 때로는 환대 지향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 인식 부족으로 ‘평신도나 비슷한 연령대에 맡김’, ‘이중언어 노력 포기’, ‘돌봄의 노력 부족’이 나타났다. 결국 연구 참여자들은 핵심범주인 ‘이주민 경험에 대한 무관심과 환대 지향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 인식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핵심범주 과정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핵심범주 이론 모델

E. 분석, 해석 및 결론

1. 이주민을 환대하지 못한 요인

이주민을 환대하지 못한 이유는 심층 면담 결과 '이주민에 대한 무관심'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이주민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했으며, 목회 활동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엇보다 신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주민을 경험한 적이 있어도 이에 대한 목회 돌봄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목회 활동을 하면서 다문화 교육을 받을 기회들이 있었지만, 적극성이 부족하여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따라서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는 이주민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였고, 적극적인 목회 돌봄을 실천하지 못하였으며, 이주민의 타자화를 방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갈등의 상황을 치유하고 변혁하기 위한 다문화 사회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목회자로서 이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신학과 목회 돌봄의 실천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필요함을 질적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다.

2. 이주민을 향한 지속적이지 못한 목회상담

이주민 목회상담의 목적은 이주민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와 고통을 파악하고,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며 효과적인 상담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다.[63] 이를 위해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화 내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상담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상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담자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64]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이주민을 향한 목회상담에 있어서 개방적인 태도가 부족하였다고 대답했다. 또한 성경에서 언급된 이주민에 대한 이해도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사회 현상과 변화하고 있는 목회 환경을 분석하면서 이에 적합한 목회상담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 참여자들이 학습할 필요성이 있음을 질적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다른 문화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 목회상담을 실시할 때 문화적 차이를 오해하여 이주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지음 받은 피조물 인간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확고한 기반 없이는 이주민에 대한 통전적인 인식과 성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

[63] 문희경, "다문화 가족상담의 현황과 목회상담적 과제," *신학지남* vol. 82, no. 2 (June 2015): 220-21.

[64] 문희경, 221.

3. 이주민을 위한 새로운 교회 공간의 창출

이주민을 위한 새로운 교회 공간의 창출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들 6 명은 모두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이주민을 위해 사회복지를 통한 선교 중심의 목회 돌봄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이주민에게 의료, 법률, 교육 지원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 돌봄이다.[65] 이주민과 함께 사는 교회 공간을 창출하여 이주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직접 시도하거나 교회 공간을 창출한 연구 참여자들은 없었다. 김창근은 "이주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이주민의 전지구적인 현상에 대하여 자기 삶의 문제로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적합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66]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는 이주민 현상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도시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과 연대하며 살아가는 공공의 목회 공간을 개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시 마을 교회는 도시 마을의 일부가 되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연대하며, 이주민을 향하여 열린 공동체가 되어 이주민과 함께 평화로운 공존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됨으로써, 성장주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교회 갱신의 새로운 공간을 제시할 수 있다.[67]

4. 연구 참여자들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40 대 목사들의 이주민에 대한 반응은 서로 일치하지 않고 다양했다. 결국 연구 참여자들은 주는 주체이고 이주민은 받는 대상임이 뿌리 깊이 각인된 식민주의적 사고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도시 마을에 이주민들이 점차

[65] 이수환, "다문화 이주민을 위한 선교적 목회의 역할," 131-37.

[66] 김창근,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정책을 위한 다문화 공간론적 접근의 시사점," *윤리연구* vol. 1, no. 118 (March 2018): 205.

[67] 강성열, *마을목회의 성서적 고찰과 실천* (충청남도: 큰빛, 2017), 27.

늘어나는 상황에서의 도시 마을 교회는 차별과 배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런 입장은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 돌봄을 하며 이주민을 경험했음을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동의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에는 이주민에 대하여 사회구조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주노동자의 유입', '종교적인 목적', '혼인신고 없는 육아 문제'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 *(연구참여자 D): 식당에서 전도사님과 밥을 먹다가 일하는 몽골에서 온 이주민을 만났어요.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도사님이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알고보니 생활 자체가 어려워서 식당에서 잠을 자며 일을 한다고 했어요. 교회에서 이불과 먹을 것을 지원해 주었어요. 전도사님은 일주일 정도 같이 생활을 해 주었어요.*
>
> *(연구참여자 C): 이주민과 무조건 상생하는 것은 반대해요. 이슬람 식품이 수입되어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지만, 무역을 통해서 무슬림들이 한국을 이슬람화로 전략을 세우고자 한다면, 교회가 공격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 *(연구참여자 A): 이주민에 대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남성과 여성 이주민이 노동비자로 일하고 있다가 만료가 되었는데도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결혼했으나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임신했어요. 그리고 출산했으나 육아 문제를 알려 주거나 사회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제기는 탈식민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상호의존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이 있다. 민가영은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 교육*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문명이라는 개념이 전통이라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개념임을 상기할 때 문명화를 명분으로 제국의 지배와 동화가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 제국이 자신을 '문명'으로 정의하는 것은 그에 대비되는 타자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해졌다. 문명화 과정은 어떤 것을 문명으로 정의하기 위해 그것이 결여된 가치와 실천을 피지배국의 특수하고 고유한 문화와 전통으로 고착화시키는 과정을 수반했다. 이 과정은 피지배국의 다양한 가치와 실천을 삭제하고 특수한 가치와 실천을 보편화시켜 문화와 전통으로 만드는 동질화의 과정을 통해 가능해졌다. 동시에 지배국 내의 다양한 가치와 실천을 삭제하고 특수한 가치와 실천을 그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와

전통으로 식민주의 패턴의 재현으로 인한 한국 사회와 교회 갈등의 심화 과정과 함께 이루어졌다.[68]

그러나 주목할 점은 연구 참여자들의 이러한 가치관과 목회 돌봄이 일관되게 일치하지 않았다. 이주민의 문화와 가치관을 전적으로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려고 했고, 이주민을 위한 환대 지향의 목회 돌봄을 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6 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이 모두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다만 면담 과정에서 이주민 관련 교육의 기회가 부족하였다고 대답했으며, 이주민의 선이해가 부족하여 실제적인 목회 돌봄의 경험이 부족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이주민을 향한 다문화적 목회 돌봄이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이주민을 향한 문제의식과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한 상생 방안에 대해 공유하면서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함께 실천할 방안이 요구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제시한 도시 마을 교회에서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의 방향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연구 참여자들이 제시한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적 목회 돌봄 방향성

방향성		근거
상호의존 관계 형성	적극적 관심	*(연구참여자 A): 이주민에 대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남성과 여성 이주민이 노동비자로 일하고 있다가 만료가 되었는데도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결혼했으나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출산했으나 육아 문제를 알려 주거나 사회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이주민 환영	*(연구참여자 B): 목사들이 교회 문턱을 낮추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는 이주민을 환영하고 있구나.'라는 말을 주변 사람들이 말해 줄 정도로 이주민을 위해 문턱을 낮추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주민 전문사역자 필요	다문화 이해교육	*(연구참여자 F): 기회와 상황이 된다면 무조건 다문화 이해교육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이주민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한다면 교회에서 이주민이 신앙 생활을 마음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연구참여자 B):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은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해요.*

[68] 민가영,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 교육," *문화와 사회* vol. 9 (November 2010): 116.

갈등 회복	평화로운 공존	*(연구참여자 C): 장기간 이주민이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잘하고, 취업도 할 수 있도록 선주민 성도들의 사업체와 연결하여 돕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주민과 상생하여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해결하며, 복음을 전하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갈등 해소	*(연구참여자 D): 본국에서 공부를 많이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이주민이 교회에 왔었지만, 교회 적응을 못하고 떠났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교회가 이해와 배려가 없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갔어요.*
환대 실천	환대 예배와 소그룹 활동	*(연구참여자 E): 이주민 본국의 언어로 예배 드리기, 이주민 자녀 아이 돌봐주기, 한글 교육, 문화의 차이 공유하기 등을 소통할 수 있는 소그룹이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공간의 환대	*(연구참여자 A): 교회 규모가 된다면, 얼마든지 이주민을 위한 개방형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어요.*

연구 참여자들은 이주민을 경험한 관계성의 전환을 목회 돌봄의 방향성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무관심에서 '다름'에 대한 차이의 인식을 재현하지 않고, 이주민을 환영하기 위해 따뜻한 감정을 전달함으로 소통의 계기를 만들었다. 따라서 이주민을 향한 상호의존의 관계 형성을 쌓고자 다문화 이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또한 차이를 외면하여 갈등을 부추기지 않고, 오히려 이해의 기회로 삼아 다양성의 인식을 확장하여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하였다. 더불어 누구나 환영받는 공간을 조성하여 이주민을 타자화와 고통으로부터 해방하고 예배와 소그룹 활동 등을 통해서 환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주민을 경험한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40 대 목사들이 이주민을 향한 환대 지향의 목회 돌봄은 무엇인지를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하기 위해서 다음 장에서는 탈식민주의에 근거해서 이주민을 향한 환대 지향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제시하고자 한다.

Chapter Ⅲ

탈식민주의와 환대 지향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
(Postcolonialism and Hospitable Multicultural Pastoral Care)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들은 목회자가 이주민들을 향한 목회 돌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이를 위해 나는 이주민과 함께 사는 이해와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탈식민주의’의 이해를 통한 ‘환대 지향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제시하고자 한다.

A. 탈식민주의 이론

1. 탈식민주의의 이해

탈식민주의(postcolonial)는 과거 식민지배국이 피지배국을 대상으로 이분법적으로 위계적인 지배 관계를 은유하면서 정치, 경제, 군사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을 기술하기 위해 지어낸 용어다.[69] 이러한 지배 관계에 대한 식민주의는 없어지지 않았고, ‘탈’이지만 비가시적이나 은밀한 표현의 방식을 통해 재생산되고 확대된다. 제국주의라고 부르는 미국을 포함한 기존 제국주의 세력인 중국, 러시아에 의한 전 지구적 정치, 경제, 문화적 지배, 종교가 모든 나라와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70] 따라서, 탈식민주의는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사회와 문화에 탈식민화의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일제 식민주의를 경험하면서 민족주의라는 이념을 대표적인 상징 질서로 재생산해왔다. 그러나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은 민족이라는 용어가 모든 세계에 형성된 탈식민주의 상황을 극복하고

---

[69] Bill Ashcroft,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eds., *The Postcolonial Studies Reader* (New York: Routledge, 1995), 2, quoted in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57.

[70] Russell, 58.

해결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였다. 민가영은 “이주민이 한국으로 이주하게 될 때 자신이 본국에서 경험했던 자국 내의 이질성과 타국민이 자국을 바라보는 민족주의의 동질성의 시각이 충돌하는 가치관 혼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71] 이 말은 이주민에 대한 시선과 대우가 본국에서는 삶의 양식과 교육의 정도에 상관없이 가치 절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로 편입한 이주민이 경험해야 하는 노동은 자신의 능력이나 교육적 정도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일과 단순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이다.

로버트 영(Robert Young)에 따르면 탈식민주의 논점은 “서양의 가장 위대한 신화, 즉 대문자 역사(history)[72]에 대한 인식론적 비판을 전개하는 것”[73]이었다. 그러므로 서구 중심의 대문자 역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제국주의적 언어, 문화, 정치 형태들이 들어왔다. 이러한 서구의 제국주의적인 대문자 역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지배자는 마치 식민체제의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타자를 설정하고, 자신과 구별, 환원하여 동일화시키는 폭력을 가해왔다.[74] 탈식민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는 식민지배가 일종의 담론체계를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사이드는 탈식민주의를 학문적인 연구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팔레스타인 출신의 영문학자이다. 그는 저서

---

[71] 예를 들어 일본인 이주 여성들은 “한국에서 재현되는 일본의 야쿠자 등의 현상은 일본 내부에서조차 극히 극우 성향을 띤 일부의 현상이지만 그것이 한국에서는 일본 전체에 대한 재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민가영,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 교육,” 109.

[72] “대문자 역사 ‘History’는 다양하고 다원적인 역사를 단일한 틀로 환원시켜 보는 것을 뜻한다.” Robert J. C. Young, *White Mythologies 백색신화*, trans. 김용규 (부산: 경성대학교출판부, 2008), 22, quoted in 이성애, “호미 바바의 혼종성을 통한 종교성 재구성에 관한 연구” (Th.M. thesis, 연세대학교대학원, 2015), 22.

[73] 이성애, 11.

[74] 허정수, “서구중심주의와 기독교: 기독교 철학과 선교사,” *사회과학연구* vol. 16, no. 1 (2008), 628, quoted in 이성애, 12.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에서 ‘오리엔탈’이라는 말이 서구의 관점에서 동양을 타자로 규정하고 식민화하기 위한 범주이며 이로 인하여 식민주의라는 폭력의 역사는 미래의 세계사를 서구와 비서구의 뿌리 깊은 대립과 갈등의 연장으로 예견했지만, *문화와 제국주의*에서는 기존의 지배국의 피지배국의 문화, 역사, 경제가 점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상호의존과 상호보완의 관계를 형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75] 또한, 그는 “하나의 문학 작품은 사회, 문화,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 속에서 읽어야 한다.”[76]고 주장하였다. 사이드에게 있어서 문화는 일종의 극장으로 다수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요인들이 있었다. 박충구는 사이드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 사이드는 다양한 문화 비판이론을 받아들임으로써 식민자에 의하여 열등하게 타자화된 피식민자, 즉 지배자에 의하여 타자화된 피지배자의 문제, 그리고 피지배자를 타자화하는 식민자적 혹은 제국주의적 관점을 분석하고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피식민자란 저항할 줄 모르는 존재, 소리내지 못하는 이들로,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인 존재로, 남성적인 강인함 보다는 여성적인 유약함으로, 간혹 인간다움 없는 냉정한 존재로, 합리성이 결여된 비합리적인 존재로, 그리고 진취적이기보다는 후진적인 존재 등으로 규정되어왔음을 밝혀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자들이 식민적, 제국주의적 지배의 필요성을 조작적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화 해 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77]

결국, 탈식민주의 이론은 자기 자신을 객관성 있게 바라보고, 타자화함으로 자기 안에 내재한 욕망의 가능성과 한계를 인식하는 자기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저기 우리 일상의 문화에 ‘지배적 억압’과 ‘복종적 순응’의 구조가

---

[75] Bart Moore-Gilbert, *Postcolonial Theory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trans. 이경원 (서울: 한길사, 2001), 107.

[76] Edward W. Said,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Random House, 1993), xiii, quoted in 안덕원, “탈식민주의 이론으로 바라보는 기독교 세례 예식: 저항과 어파퍼시스(Apophasis) 그리고 제 3 의 공간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vol. 79 (2015): 262.

[77] 박충구, “탈식민주의 담론의 기독교 사회 윤리학적 이해,” *신학과 세계* vol. 49 (2004): 197-98.

있으며, 항시 식민주체와 식민객체가 혼재된 두 축을 인정하는 '양가성'을 긍정하는 것이 탈식민주의 이론이다. 이런 점에서 탈식민주의 이론은 자기긍정과 자기부정의 두 과제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우리 일상의 현실을 해체하여 참된 자유를 얻는 해방적 동기를 담고 있다.[78] 이에 대하여 이진구는 "기독교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불교에 대한 인식이 '우상'이나 '미신'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구 선교사들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현재 종교 갈등의 원인"이라 지적하였다.[79] 백인들은 제국주의 문화를 아시아에 들어와서 오리엔탈리즘과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 그것이 나타나는 외형의 모습이 무관심이다. 김경섭은 오리엔탈리즘과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대하여 한국의 교육시스템과 한국 도시 마을에 있는 대형교회들까지도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하였다.[80]

2. 다문화적 목회 돌봄의 적용

이러한 탈식민주의의 관점은 이주민의 타자화된 처지를 이해하고,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에게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실천하기 위한 도움을 다음과 같이 줄 수 있다. 첫째, 탈식민주의를 통해 이주민과 함께 사는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실천할 수 있다. 김혜란은 "고통에 관심하는 것이 실천신학의 목적이다. 그래서 실천신학의 목표는 고통에 대하여 해방되고, 치유하고, 자유로워 지고자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81] 이주민은 도시 마을에서 언어와 인종, 그리고 문화의 다름으로 인하여 생활에 있어서

---

[78] 박충구, 200.

[79] 이진구, "근대 한국 개신교와 불교의 상호인식-개신교 오리엔탈리즘과 불교 옥시덴탈리즘," *종교문화연구* no.2 (2000), 161, quoted in 박충구, 12.

[80] 김경섭, "탈식민주의와 포스트탈식민주의의 정치적 가능성," *현대사상* no. 2 (May 2008): 118.

[81] 김혜란,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the Postcolonial World" (lecture, doctor of ministry,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laremont, CA, April 6, 2018).

취약성(vulnerability)을 가질 수 있다. 이 취약성은 이주민에게 상호의존을 해야 하는 계기가 되며,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도 동일한 상호의존을 경험할 수 있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는 자서전인 *Out of Place* 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주민의 취약성을 '많은 정체성으로 인한 불안감(unsettled sense of many identities)'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불안정한 정체성에 대한 복잡성은 물리적, 지리적으로 이주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분명히 발견된다.[82] 도시 마을의 이주민도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동일하게 경험한다. 그렇다면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는 이주민 현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임마누엘 라티(Emmanuel Y. Lartey)는 "포스트콜로니얼 상황 가운데 있는 목회자는 어떤 문제의식에 대하여 고정화된 한 가지 관점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다른 목소리들(other voices)이라고 말하는 생각이나 의견이 감추어져 있거나, 무시되어 있거나, 거부되어 있는 목소리들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한다.[83] 또한 김혜란은 찾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서로가 주체가 되는 '상생(相生)'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였다.[84] '상(相)'이 서로를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뜻한다면, '생(生)'은 치열한 삶 자체를 뜻한다.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는 상호의존 중심의 인식 전환으로 이주민과 '상생'의 공간을

[82] HyeRan Kim-Cragg, *Interdependence -A Postcolonial Feminist Practical Theology* (Eugene: Pickwick Publications, 2018), 133.

[83] Kim-Cragg, 117.

[84] '상생(相生)'은 '상호생활(mutual life)' 또는 '공동생활(co-living)'로 번역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상호의존적인 삶의 방식을 가리킨다. 여기서 두 번째 글자 '생(生)'은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는 형이상학적이거나 기계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이고 실존적인 삶의 차원을 가리킨다. 또한 육체적인 삶을 위한 본능적이고 물질적인 삶의 문제도 포함된다. 이런 의미에서 '생'은 생활을 의미하는 '삶'과 동일시된다. Kim-Cragg, 174.

창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주민에게 자신만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교회의 공간을 제공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소속감과 안정감을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다. 도시 마을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서로 함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고 상호의존의 신학은 이러한 인식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둘째,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는 탈식민주의를 통해 사역하는 교회가 이주민을 위해 피난처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시편을 살펴보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소외받고 타자화되는 일들을 자주 경험하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피난처가 되셨다고 고백하였다(시편 142:5). 그리고 그 도우심의 경험으로 다윗은 아둘람 굴에 거하면서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었다(사무엘상 22:2).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도 이주민에게 피난처로 제공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언어장벽에 처한 이주민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 해명할 상황이 생기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대변해 주는 선주민이나 공동체가 필요할 수 있다. 도시 마을 교회가 그러한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이주민의 문화에 대한 무지나 미흡한 여건 등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에 대하여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는 사역하는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언제나 이주민을 환영할 수 있다. 또한, 이해와 배려를 통해 그들의 갈등을 해소하도록 돕고, 적극적인 관심으로 그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더불어 도시 마을 교회 평신도와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하여 이주민들에게 평화로운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다.

미국에서 이민자들을 긴급하게 피할 수 있도록 피난처의 기능을 담당하는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이보교)[85]를 소개하면 이 네트워크는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보호막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평화로운 교회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민 관련 변호사들은 교회가 요청하면 직접 찾아가서 법률 설명회를 지원하고, 이민자들을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들도 네트워크를 하여 이주민들의 피난처 기능을 담당하는 이주민 보호교회 네트워크를 실천하여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감당할 수 있다.

셋째, 탈식민주의의 이해는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제 3 의 공간(the Third Space)'[86]으로 재편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김혜란은 강의 중에 '혼종성(hybridity)'[87]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타자화된 '서발턴(subaltern)'[88]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면서 서발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선주민의 공동체와 만나게 되면서 두 문화의 경계에서 가치관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다문화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적 문화를 인정해 주는 공간이 바로 '제 3 의 공간'이라고 설명하였다. 박종성은

---

[85] 이민자보호교회, https://kascn.org 참조.

[86] 호미 바바(Homi K. Bhabha)는 정체성 형성(속지/속인), 배경, 출신이 아니라 함께 사는 자들이 공생하는 공간을 '제 3 의 공간(the Third Space)'으로 설명했다. 태혜숙, *한국의 탈식민 페미니즘과 지식생산*, 2nd ed. (서울: 문학과학사, 2006), 311-19.

[87] 혼종성은 거의 비슷하거나 같지 않은, 되도록 종용받으나, 똑같을 수 없는, 그리고 똑같이 되기를 저항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섞임의 존재라고 말한다. 김혜란, "Conflict,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the Postcolonial World."

[88] 서발턴(subaltern)은 "남아시아 사회에서의 종속…그것이 계급, 카스트, 연령, 젠더, 지위 또는 그밖의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든…의 일반적인 속성을 가리키는 한 이름으로 사용된 데서 비롯되어 이제는 일반적으로 국가와 민족, 계급 등의 거대 담론에 의해 배제되고 억압되어 그 존재가 인식되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자리잡았다." 강옥조, "그람시와 서발턴 개념," *역사교육* vol 82 (2012), 135.

'제 3 의 공간'을 자국 문화와 타문화, 주인과 하인, 자아와 타자의 구분이 아니라, 그 사이의 공간(in-between)이라고 주장하며, 지배와 피지배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89] 또한 정형철은 "호미 바바(Homi K. Bhabha)의 혼종성은 다른 입장들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제 3 의 공간'이 된다"라고 말하였다.[90] 데이비드 허다트(David Huddart)는 제 3 의 공간에 관한 호미 바바의 인터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나에게 혼종성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제 3 의 것이 나타나는 두 개의 근원적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해 주기 때문이 아니다. 내게 혼종성은 다른 위치가 나타나게끔 해 주는 '제 3 의 공간'이다. 이러한 제 3 의 공간은 그것을 구성하는 역사들을 대신하고, 권위의 새로운 구조와 새로운 정치적 주도권을 설정한다.[91]

이소희는 호미 바바의 '제 3 의 공간'에 대해 "호미 바바(Homi K. Bhabha)는 그동안 정의되지 않았던 경계선 공간(borderline)을 주목하고 새로운 언어적 기호로 '국가들 사이의 틈새 공간'이라는 개념을 'international in-between space'라는 용어로 만들어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라고 말하였다.[92] 계속해서 이소희는 현대 사회의 특징인 자본의 전 지구화 현상으로 사람들의 대 이동이 일어나고 여러 인종들 간의 교류를 통하여 이질적인 문화들이 만나서 문화적 잡종(cultural hybridity)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경계를 넘어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제 3 의 공간'을 만들어 낸다고 말하였다.[93]

---

[89]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푸코, 파농, 사이드, 바바, 스피박* (서울: 살림, 2012), 58.

[90] 정형철,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코스모폴리타니즘* (서울: 동인, 2013), 91.

[91] David Huddart. *Homi K. Bhabha by David Huddart 호미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 trans. 조만성 (서울: 앨피, 2011), 228.

[92] 이소희, "호미 바바의 '제 3 의 영역'에 대한 고찰-탈식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영미문학 페미니즘* vol. 9, no. 1 (2001), 103-4.

[93] 이소희, 105.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는 다양성의 확장을 통해 이주민의 정체성을 수용하고 인정하여 재편성이 일어나는 '제 3 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사역하는 교회가 다른 경계선 상의 계층이 공존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타문화의 이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주민을 위한 '제 3 의 공간'으로서의 관계 문화적 공동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주민은 소외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환대와 평등을 함께 나누고 의존하여 관계를 맺는 이웃이 될 수 있다. 또한, 공간 사용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인종과 언어, 그리고 문화의 한계를 넘어서는 예배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주민과 상호 주관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며 진정으로 함께하는(togetherness) '제 3 의 공간'으로 재편성하여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는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감당할 수 있다.

B. 환대 지향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

1. 환대(hospitality)의 이해

레티 러셀(Letty M. Russell)은 "환대란, 위기에 봉착한 우리 세계를 치유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차이를 넘어서 연결하는 우리의 행동 속에 각인된 하나님의 환영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94] 러셀은 포스트콜로니얼 담론의 관점을 가지고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95]에서 스스로를 주위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소개하였다. 그 이유를 러셀은 그가 이성애자도 아니고, 강건하지도 않고, 잘 살지도 못하고, 백인도 아니고, 유럽계 미국인도 아니고, 여성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주변인의 삶을 살았던 경험으로 본인이 환대의 신학을 선택하였다. 그녀는 환대를

[94]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24.
[95] Russell, 17.

실천하는 이유를 교회의 소명이라고 설명하며, 환대의 신학을 통하여 정의, 평화, 그리고 자연계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였다.[96] 더불어 차이를 긍정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긴장-속의-일치'가 아닌 '환대-안의-일치'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이 세상에서 '저쪽 편'의 사람들에 대한 위기의식과 두려움을 치료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하나님의 행동들에 참여하기 위해 차이를 넘어서 접촉함으로써 하나님의 환영하심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러셀은 이주민이 경험하는 사회적 역사들과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현재의 관계에서 환대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으며, 개인적인 정체성에서 어떤 차이가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하고 다양한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탈식민주의 신학의 관점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관점으로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는 이주민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는 자세를 가지고, 러셀(Russell)이 말하는 '공정한 환대'로 서로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환대(hospitality)는 손님이나 낯선 이방인을 너그럽게 대하며, 적의를 가진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도 따뜻함으로 대해주며 그들을 가족과 같이 맞이하는 행동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환대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함과 편안함을 주며, 휴식의 자리를 제공하고,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식을 대접하는 타자 중심의 개념이다. 이 환대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한 사람이 프랑스의 철학자 알제리 태생의 쟈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이다.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환대는 타자에게 선택권을 넘겨주고, 타자가 주도권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주인의 편에서 베푸는 '관용'[97]을 비판하였으며, 타자가 지배와 통제의 대상이 되면 타자의

---

[96] Russell, 47.

[97] '관용'은 선한 얼굴을 가장했지만 심증으로는 일정한 선을 그어 넣고 그 일정 부분까지만 용인하겠다는 한계를 가진 태도이다. 김광기, "관용과 환대, 그리고 이방인: 하버마스와 데리다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vol. 36, no. 4 (December 2012): 142.

주권성은 하위개념으로 전락하고, 주인에게 동화된 타자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데리다(Derrida)는 그러한 환대를 '조건적인 환대'라고 말하였으며, '조건적인 환대'는 내 울타리에서 조건을 따르는 이방인을 나의 공간으로 초대하는 것이고, 제한적이라고 말하였다.[98] 그러나 '무조건적인 환대'는 예상하지 않는 방문과 기대하지 않은 방문자를 아무 조건 없이 맞이하고 환영한다. 강남순은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무조건적 환대'를 말하면서 코즈모폴리턴 환대 신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첫째, 환대의 신학은 한 인간을 사회 문화적 정체성, 정치적 위치나 역량 등과 상관없이 신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고귀한 인간으로, 그리고 우주에 속한 '동료시민'으로 보는 '연민적 시선'으로부터 출발한다. 둘째, 환대의 신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신분이나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얼굴'을 지닌 개별적 존재로 보는 '개별성의 윤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셋째, '환대의 신학'이란 개인의 구제나 관대함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담론이고 실천이다.[99]

강남순은 코즈모폴리턴 담론이 "모든 개별인이 사회정치적,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다 함께 이 우주에 소속된 시민이라는 점을 환대의 근거로 삼고 있으며, 타자에 대한 '연민적 시선'을 갖는데 이는 동정심이나 이타주의가 아닌 '함께 고통받음(compassion: suffer-with)'"이라고 말한다.[100] 이를 위해서 강남순은 모든 사람을 향한 '연민'으로 환대하는[101] '우주 시민'(cosmic citizen)의 코즈모폴리턴 의식을 갖고, 복잡하게 작용하는 권력과 정치에 의해 이웃이 아닌 얼굴 없는 존재들, 비존재들로 살아가고 있는 타자들에게 예수의 이웃 사랑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질문하라고 말한다.[102]

---

[98]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78.
[99] 강남순, 198.
[100] 강남순, 159.
[101] 강남순, 190.
[102] 강남순, 218.

오늘날 한국 사회를 관찰하면 수많은 타자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타자의 범위를 시야에 들어오는 주변의 가까운 대상들로만 한정할 경우 타자들을 놓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이웃 사랑은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내 가족, 내 교회, 내 공동체만을 사랑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환대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은 어떠한 종류의 조건이나 경계에도 구애받지 않는 모든 인간이다. 그래서 환대 신학에서 말하는 중요한 과제는 다양한 이웃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다.[103] 넓은 시야로 주변을 바라보면 가까이에 있는 그동안 무관심했던 타자들, 즉 이주민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이주민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 사랑, 환대를 실천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환대는 나를 비롯한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에게 중요한 인식과 관점이다.

2. 환대 지향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이란?

나는 이제 여기서 환대 지향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논의하려 한다. 환대 지향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이란 이주민에게 사회, 문화, 경제, 교육, 의료, 법률, 삶 전반의 전인적 필요를 채워주는 환대를 통해 차별의 경계를 허물고 상호의존을 지향하는 상생의 목회를 추구하는 돌봄을 말한다. 이를 통해 나와 타자, 주인과 손님을 교차적으로 경험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성별, 인종, 국적 등과 관계없이 서로를 나인 너와 너인 나로 경험하는 상호의존을 지향하는 목회 돌봄이다. 또한 이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환대를 통해 자신과 타인,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지속해서 실천함을 통해 전인적 혹은 통전적 목회 돌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103] 강남순, 229.

현재 다문화사회를 맞이한 상황에서의 상호의존과 환대를 지향하는 다문화 중심의 목회 돌봄은 다문화 현상으로 인해 억압받고 소외당하는 이주민의 현장을 계속 주시하며 돌봄의 필요성을 조사하여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 효능감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공공신학[104]으로서의 목회 돌봄을 실천하는 것과 연결된다. 성경은 외국인들에게 환대를 베풀 것을 말하며, 외국인들이 공공신학의 대상자가 된다고 말한다.[105]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환대는 윤리적 규정으로서의 무조건적인 환대를 말하고 있지만, 복잡한 사회 구조에서의 환대는 법의 이행을 통한 조건적 환대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에서 복잡한 벽에 부딪힌다.[106] 강남순은 환대의 신학을 통하여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예언자적 소명'이 필요하며,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며 좋았다고 선언하는 절대자의 진리를 환대 지향의 목회 돌봄의 핵심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107] 그러나 김기철은 대부분의 목회자가 이전에 다문화적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학적 입장이나 돌봄의 지침도 없으며

---

[104] 이도영은 '공공신학'에 대하여 "기독교적 신념과 교리, 교회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공적 접합성에 관심을 갖는 신학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공공신학의 특징 5 가지를 말한다. "첫째, 공공신학은 성경적인 토대와 정통 신학 위에 세워진 신학의 한 분야이다. 둘째, 공공신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공적인 영역에서 신학적 개념이나 사고방식이 하나의 담론을 형성하도록 이론과 실천의 토대를 구축하는 신학이다. 셋째, 공공신학은 종교 공동체뿐 아니라 더 넓은 사회를 포괄하는 문제, 즉 공적 문제에 대한 신학 담론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넷째, 공공신학은 교회 내의 사람뿐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이해하고 확신하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의도된 신학, 즉 지구적 시민 사회를 위한 보편성을 지향하는 신학이다. 다섯째, 공공신학은 타학문 분야의 다양한 도구와 자료와 방법을 활용하는 학제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공공신학자는 이중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 이도영, *페어처치*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213-14.

[105] 레위기 19:33-4,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채형욱, *100 주년기념성경*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8), 177.

[106] 강남순, "코즈모폴리턴 환대의 신학: 필요성과 불가능성의 경계에서," *기독교사상* vol. 668 (August 2014): 241.

[107] 강남순, 249.

교단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이나 훈련도 없었다고 지적한다.[108] 다만 한국인이 오랫동안 구현해냈던 독특한 '정'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한국인의 목회자들은 일방적인 행위로 환대를 시작하지만, 환대의 과정에서 상호 행위로 발전할 수 있으며, 환대의 결과 '전적 타자'(the wholly Other)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109]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는 일방적인 행위의 환대가 상호 행위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주민에게 자신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해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그들이 안정감과 소속감을 경험하도록 하는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 이주민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수자가 조건적인 환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의식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치관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확립되고 사회로 퍼져 나갈 때 환대를 실천하는 공공성을 확립한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실천할 수 있다.

C. 이주민을 향한 환대

이주민은 일반적으로 형성 원인에 따라 혼인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 이탈 이주민, 유학이주민으로 나눈다.[110] 혼인이주민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을 통해 형성한 이주민이고, 이주노동자는 외국인이 근로를 목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이다. 그리고 북한 이탈 이주민은 남한에 정착한 사람들로 이들은 탈북자 여성, 탈북자와 한국 출신의 배우자 또는 탈북자 독신으로 살거나 동료와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이다. 유학이주민은 외국인이 한국에 학업을 목적으로 대학의 생활관이나 대학 근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이다.

---

[108] 김기철, "다문화적 돌봄을 위한 목회신학적 성찰," 153.
[109] 김기철, 171.
[110] 김광기, "관용과 환대, 그리고 이방인: 하버마스와 데리다를 중심으로," 142.

'단일문화'에 익숙해 있는 한국 사회는 2007 년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백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16 년 200 만 명을 상회하면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다.[111] 한국 사회에는 2020 년 5 월 말까지 2,143,804 명의 이주민이 살고 있다.[112] 2 백만 명이 넘는 이주민이 다양한 모습으로 한국 사회에 머물고 있다. 한국 사회가 다양한 종교, 문화, 인종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의 증가로 인하여 도시 마을 목회 현장의 다양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양성이 차별과 소외를 당하지 않도록 상호 이해와 상생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4 장에서는 상호 의존과 환대를 지향하는 다문화 중심의 목회 돌봄을 실제 목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나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기반으로 한 실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111] 조성돈 et al., *더불어 사는 다문화 함께 하는 한국교회*, 35-36.

[11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3.

Chapter Ⅳ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한 다문화적 목회 돌봄 실천 방안
(A Plan to Practice Multicultural Pastoral Care through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탈식민주의를 통한 이주민 이해와 환대 지향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실제 목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나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기반 한 실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A. 다문화 이해교육의 이해

2021 년은 1948 년 12 월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이 73 주년이 되는 해이다. 전쟁과 갈등으로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예의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인권침해 상황을 바라보며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근본이 되는 권리를 선언하였다. 사람은 모두 동등하며 어떤 조건으로도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인권선언은 이 프로젝트의 방향과 일치한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주민들은 도시 마을에 거주하고,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시 남성들과 결혼이나 재혼까지 범위가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113] 이주민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갈등과 종교적 충돌로 연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114] 하지만 이주민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안에서 중요한 구성원으로 편입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은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안에 내재한 갈등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

[113] 김혜란 and 최은영, *성서에서 만나는 다문화 이야기* (서울: 대장간, 2013), 5.

[114] 조귀삼, "유럽과 한국의 다문화인 유입에 따른 종교 갈등의 비교와 선교전략 연구," *복음과 선교* vol. 17 (April 2012): 178.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에게 다문화 이해교육은 한국 사회에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다름을 존중하고 차이를 차별하지 않으며 갈등을 예방하는 평화로운 공존에 기여할 수 있다. 다문화 이해교육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와 관점, 인권과 평화라는 가치에 공감하는 교육이다. 즉, 다문화 이해교육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총체적인 영역에서 온전함의 관계를 이루는 교육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이다.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는 이주민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배우는 태도가 필수적이다. 목사는 이주민으로부터, 이주민은 목사로부터 서로 배우는 교육과정을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사역하는 교회에도 개설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은 도시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다름을 존중하고 환대 안의 일치를 통해 차이를 차별하지 않으며 사역하는 교회가 총체적 관계성의 회복을 지향하는 평화로운 공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다문화 이해교육의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절된 모든 관계까지의 총체적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더불어 너와 나의 차이를 부정하여 발생하는 '획일화'를 강요하는 사고체계를 넘어 타자뿐만 아니라 타문화의 적극적인 수용과 이해를 바탕으로 진실한 평화와 공생이 가능한 상생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B. 다문화 이해교육의 방향: '독립'을 넘어 '상호의존'으로

질적 연구 결과에서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은 이주민들이 소외와 차별을 경험하지만 무관심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주민들은 목사들이 사역하는 교회에 지속해서 출석하지 않았고, 환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주민을 향한 목사들의 무관심은 이주민 경험에 대한 노력의 부족과 타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드러났다. 무관심은 타자에

대하여 특별한 인지적인 집중을 하지 않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최성칠은 *공동체 안에서의 무관심: 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라는 학술논문에서 다름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무관심은 모호한 심리적 상태, 즉 막연하거나 공허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다름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타자, 자신과 상호관계가 있기 원하신다. 그리고 다름을 주셔서 그것을 가능케 하셨다. 무관심은 관계하는 대상의 독특한 자기표현에 눈을 감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타자, 자아로부터 새롭고 신비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무관심은 존재들의 가능성 혹은 초월성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다.[115]

이어서 그는 콜레트 기요맹(Colette Guillaumin)의 표현을 빌려 "다름은 개체들 '사이의 다름(difference between)'이 아니라 일방적인 기준(a referent)을 세워놓고 그것과 '비교한 다름(difference from)'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다름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파괴하는 죄"라고 말한다.[116] 그리고 이 다름을 무시하는 무관심의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17]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는 다름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타자(이주민)를 맞이함에 '독립적인 나'를 넘어 '상호의존하는 나'가 되려고 끊임없이 연습할 수 있다. '독립적인 나'를 넘어 '상호의존하는 나'가 되려는 노력은 다름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

115 최성칠, "공동체 안에서의 무관심: 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 *장신논단* vol. 24 (December 2005): 264.

116 최성칠, 263-65.

117 최성칠, 267.

동질화와 획일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나'와 '상호의존하는 나'가 인간의 존엄성과 상호존중의 원칙들을 중시하며, 환대 지향의 상호의존으로 경험할 수 있다.

다문화 이해교육의 다문화적 접근은 도시 마을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현상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성서에 따른 관점에 기초하여 목사와 이주민이 상호의존으로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한다. 또한, 차이가 격리나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고,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인을 가두지 않으며, 인류 공동체와 공동선을 향한 개방성, 이타성, 사회참여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서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은 평화교육을 다루고, 다문화, 다인종 사회의 역사적 선례들로부터 비판적 성찰을 갖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그 교육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차이를 차별하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그 교육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소수인종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다수 집단의 사람들 교육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다문화 이해교육은 교육방법과 과정이 주입식이나 일방적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상호존중의 원칙들을 중시하는 교육을 받고 그 교육 내용을 공유하는 변혁의 교육 방식을 택할 수 있다.[118] 따라서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은 기독교교육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의 다문화적 접근은 궁극적으로 다문화적 상황에서 차별을 넘어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고 공평과 평등, 상생의 문화를 건설해 나가기 위한 다문화 이해의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

---

[118] 오현선, *기독교다문화교육, 다양성, 관용,* 154-58.

C. 다문화 이해교육의 목표: ‘상호문화교육’으로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은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상호문화교육을 받고 그 교육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이해교육은 피교육자의 현실을 반영한다. 도시 마을에 이주민 현상이 진행되면서 그 공동체는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공존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인종과 종교의 갈등이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다.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는 도시 마을에서 이주민을 고려한 상호문화교육을 사역하는 교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문화는 인간의 모든 생활양식을 포괄하는 다양성을 반영한 개념이다. 따라서 모든 문화는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과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는 융합이 일어나게 된다. 상호문화주의는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 및 집단에 대해 단순히 공존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공유하면서 이루어진다. 또한 모두가 주류가 됨을 지향하기 때문에 동등하게 교류가 일어나면서 소통의 주체가 다양해진다.[119] 그래서 점차 공유가 확산하면서 타자 이해를 통한 자기 이해가 나타나고 새로운 문화 통합이 나타나게 된다. 상호문화교육은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 및 집단이 가진 경험의 차이와 문화를 교류하고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학습을 강조한다.[120] 즉 개인 및 집단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의미들이 교환되고 연대함으로써 서로의 영향을 공유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를 다르게 체험하는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공동협상 등을 통하여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받기 위해 가지는 감수성을

[119] 이정은,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의 대결: 한국적 적용을 위한 연구,” *시대와 철학* vol. 28, no. 1 (March 2017): 205.

[120] 김한식, “노인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상호문화교육콘텐츠 방안 연구,” *교회문화연구* vol. 22, no. 5 (October 2016): 343.

‘간문화성(interculturality)’[121]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보통은 문화들 사이에 놓인 제 3 의 공간에서 상황적 맥락을 통하여 문화적인 소통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김은정은 신앙 공동체에서 대부분 상이한 목소리들 사이에서 새로운 의사소통을 창출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다문화성에서 간문화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122] 이를 위해서 첫째, 신앙과 문화 간의 창조적 대화의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일 것, 둘째, 이를 위해서 많은 목소리가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경험을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할 것, 셋째, 신앙과 문화 간의 대화 방향과 결과를 결정짓는 간문화적인 소통의 요인들을 숙지해야 할 것을 요청한다.[123] 이를 통해 상호변화와 상호치유를 도모하며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존재로 변화하도록 도울 수 있다.

D.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해 실천되는 다문화적 목회 돌봄: ‘배타와 배제’를 넘어 ‘환대’로

예수는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세상과 연대해야 하는지 보여주었고, 공생애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몸소 실천한 것이 기독교에서의 환대이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야고보서 1:27). 그런 의미에서 배타와 배제를 넘어 도시 마을에서의 이주민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기독교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환대의 방법이라 말할 수 있다. 헨리 나우웬(Henri Nouwen)은 환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환대는 쌍방향 통행의 상호 간 목회를 말하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서로 역할을 바꾸어 보고,

---

[121] 김은정, “간문화적 기독교 종교교육방법론,” *기독교교육정보* vol. 27 (December 2010): 160.
[122] 김은정, 161.
[123] 김은정, 162.

서로 다른 혹은 '타자'라고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배우는 것"[124]이다. 타자는 나와 신앙도 다르고, 문화와 배경도 다르다. 내가 그런 낯선 자들이 되는 것이 타자화이다.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는 서양 철학의 보편주의로 전제된 동일성 사고를 문제로 삼아, 독립 중심의 윤리가 타자 중심의 윤리로 변환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데리다는 환대를 "얼굴에 열리는 것, 더 정확히는 얼굴을 '맞아들이(accueil)'는 것 그 자체의 이름이 된다."[125]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얼굴을 맞아들이는 것은 큰 의미를 담고 있다. 강남순은 '얼굴'을 타자 인식의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환대를 베푸는 '주인'이 '미소' 없이 '손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장면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얼굴'은 그 사람의 이름, 성별, 국적, 인종, 성적 성향 등 다양한 사회적 표지들이나 범주들 '이전에' 또한 그 표지들 '너머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타자 인식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126] 이런 의미에서 얼굴을 맞아들이는 것은 타자에게 열리는 것이며, 타자와 관계를 맺겠다는 의지가 나타남을 말한다. 그리고 데리다의 환대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 환대이다. 달리 말해, 주최 측이 주도권을 가진 초대가 아니라 타자 측이 주권을 갖는 방문이 되어야 한다.

조건적 환대는 환대의 주체가 타자를 선별하여 자신의 기준에 맞는 타자만 받아들인다. 따라서 타자의 이질성이 모두 제거된 채로 맞아들여 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타자와의 만남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적 환대는 타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

[124] Henri Nouwen, *Reaching Out: The Three Movements of Spiritual Life* (New York: Doubleday, 1975), 79-81, quoted in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49.

[125] Jacques Derrida, *Adieu a Emmanuel Levinas 아듀 레비나스*, trans. 문성원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6), 51.

[126]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87.

것이다. 그러므로 타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관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 즉, 집주인 행세를 위해 타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것은 무조건적 환대가 아니다. 환대는 타자를 나의 공간으로 받아들여 자유롭고 편안함을 제공하고, 상호의존을 통해 공동체를 같이 형성하여 그 안에서 무조건적인 육체적, 정신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다.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주민들에게 다문화적 목회 돌봄의 환대를 실천할 수 있다.

1. 예전적인 접근: 서로 함께하는 예배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의 예배 순서는 전통적인 예배의 순서를 따라 드리고 있었다. 다만 언어나 문화의 낯섦으로 인하여 이주민들이 예배에 함께 할 수 없다면 사역하는 교회의 예배도 변화가 필요하다. 러셀은 우리의 예배가 공정한 환대를 실현하기에는 아직 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교회, 그리고 세계를 치유하고 회복하며 변화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타자 지향적인 예배의 변화를 통해서 서로 함께 환대를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한다.[127]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지, 언어, 직접적 행위로 표출함을 통해 타자를 공동체 안에 수용하고 직접 타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환대를 서로 함께 경험하는 반복적인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128]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공간이자 배타와

[127]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169-71.

[128] 이향순, "공감에 기초한 타자 지향적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no. 60 (December 2019): 424.

배제를 벗어나 관심과 수용을 제공하는 안전한 보호처다. 또한 이주민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열린 환대의 공간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환대가 드러나는 예배 공간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서로 함께 환영하고 환영받는 '환대의 예배'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예배를 통해 체험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환대를 자신의 내면에 투영하여 삶의 현장에서도 그 환대를 실천하는 동력을 이주민들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찬양이나 새신자 환영 시간에는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통하여 모두가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할 수도 있으며, 공동의 기도 시간에 이주노동자들이나 난민 그리고 탈북 이주민 등을 위한 기도제목 등을 포함한다면 모든 예배 참여자들에게 환대의 가치를 내면화시키며, 차별에 반대하는 실천적 행동을 할 수 있다.

예배의 의례 가운데 성만찬을 통해서 이주민들과 함께 예배에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화해와 하나가 되는 사역을 경험할 수 있다. 성만찬은 떡과 잔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 사랑의 의미를 타자에게 실천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 성만찬을 통해 선주민이나 이주민, 어른이나 아이들,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차이 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갈라디아서 3:28). 성만찬을 통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주의 피와 살을 나눈 형제요, 자매가 되기 때문에 타자가 없고 차별이 없는 하나 됨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성만찬은 배타와 배제에서 환대를 경험하게 하는 화해의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상식은 교제와 화해의 신학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코이노니아' 친교의 의미는 주께서 베푸시는 거룩한 식탁 공동체의 성찬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 간의

섬김과 나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에 근거해야 한다."[129]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는 사역하는 교회에서 환대를 경험하게 하는 성만찬을 통해 이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며, 그리스도 예수의 신비스러운 몸의 지체가 되는 다문화적 목회 돌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신년을 맞이해서 아동부 예배 시간에 학부모를 초청하여 다문화 예배를 드렸다. 아동부는 초등학교 1 학년에서 6 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을 말하며, 그 어린이 중에는 다문화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 초청으로 혼인이주민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였다. 혼인이주민의 학부모들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 순서를 진행할 때에 어려움이 없었다. 예배를 통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각 나라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동영상 자료를 함께 공유하였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나라별 새해 인사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한국어와 "新年(しんねん)、明(あ)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신넨, 아케마시떼오메데또우고자이마스."라는 다문화가정 어린이 어머니의 나라인 일본어로 예배의 참여자들이 서로 인사하였다. 대표기도는 다문화가정 어린이가 속한 반 교회학교 교사가 맡았다. 기도 내용 중에는 다문화가정 어머니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원하는 내용이 있었고, 다문화 가정의 평안함을 위한 내용도 있었다. 성경봉독은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로 진행하였는데, 미리 아동부 어린이들 어머니의 국적을 조사하여 준비한 나라별 성경 동영상으로 진행하였다. 설교는 창세기 1 장 말씀을 통해 세상의 처음에 대하여 전하면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청지기적인

[129] 정상식, "하나님 나라 잔치의 개념으로서의 기독교 성찬 성례전을 통한 예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M.Div. thesis,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4), 77.

소명임을 알기 쉽게 전하였고, 동시에 세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아담과 하와의 후손임을 전하였다.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 예배에 자리에 모인 어린이들과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차별이 없고 타자가 없는 하나가 되는 화해를 경험하였다. 이를 통해 사역하는 교회에서 나는 익숙하지 않았던 언어와 문화를 통해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불편함을 경험하면서 서로 함께 환대하는 기회를 열어가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혼인이주민 학부모는 예배를 통해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다양한 문화를 공존할 수 있는 '제 3 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면에서 사역하는 교회의 구성원들을 열린 시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는 매달 1 번씩은 성만찬을 시행하고, 분급자 중 몇 명이라도 이주민을 세워 그들이 차별과 배제가 아닌, 사랑과 환영을 경험할 수 있는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제안한다.

2. 관계적인 접근: 환대의 밥상

환대의 밥상 문화는 시공을 초월하여 어디든지 발견할 수 있는 문화이다. 도시 마을에서 숨 쉬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도 밥상 문화는 늘 경험하게 되는 가치 있는 문화이다. 심방을 갈 때도 경험하고, 교회 구성원의 사업장을 방문해도 따뜻한 커피를 직접 원두에 갈아서 내어주는 환대를 경험한다.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도 이주민들에게 환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가 바로 환대의 밥상을 차려주는 일이다. 환대의 밥상은

음식이 매개되어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고, 교제가 이루어지며, 소통과 관계가 형성되고, 상처가 치유되며 배타와 배척에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게 하는 기독교교육의 방법이다.[130]

예수는 공생애 기간에 이방인들이나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공적 공간에서나 사적 공간 어디에서든지 차별 없이 환대의 밥상으로 환영하였다. 당시에는 식탁의 교제를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조건의 경계들이 있었고, 신분에 따라서 구별된 음식이 있었으며, 종교적인 이유로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구별되었다. 또한 양자의 상호성을 전제로 식사 참가자들은 대접을 받은 만큼 보답해야만 했었다.[131] 부에 대한 편견, 정결에 대한 관심, 하나님 백성의 정체에 관련된 배타성들이 많은 사람을 환대의 밥상에서 배척하고 배제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러한 경계들을 다 허물고 환대의 밥상으로 하여금 그들의 타자성을 회복시켰다.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은 "예수의 식탁 교제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식탁은 우리의 정체성이 탄생한 자리이자 우리의 인생이야기가 재생되고 기억되고 경험되는 장소"라고 말한다.[132] 예수의 공생애 사역은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부족하지 않게 음식을 넉넉히 준비하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식사로 초대하여 귀한 손님이나 가족으로 대접하였다.[133] 뿐만 아니라 말할 수도 없으며 들을 수도 없는 속칭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차별과 배제 그리고

---

[130] 김난예, "기독교교육 방법에서 밥상공동체의 교육적 가치," *기독교교육논총* no. 46 (June 2016): 73.

[131] 반재광, "누가의 환대의 식탁 연구: 누가복음 14:12-24 과 사도행전 10 장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vol. 24, no. 3 (August 2017): 559-62.

[132] Leonard Sweet, *From Tablet to Table 태블릿을 넘어 테이블로,* trans. 장택수 (고양: 예수전도단, 2015), 18.

[133] Sweet, 162.

냉대를 경험한 이들을 초대하여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들의 존재를 구체화했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주민들을 향한 환대의 밥상은 이와 같아야 한다.

성경에 애굽을 탈출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법을 계약법(혹은 시민법)에 넣어 엄격한 규범으로 지키게 하였다. 홀로된 여성, 고아, 나그네들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여 따뜻하게 환대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음식은 환대의 표현"[134]이며 환대는 음식과 신앙이 만나는 접촉점이 될 수 있다. 정경호는 창세기 18 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낯선 나그네를 환대하는 장면을 통해서 The New Interpreter's Bible 을 인용하여 환대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아브라함의 환대의 첫째의 모습은 멀리서 지나가고 있는 낯선 사람들을 반가운 마음으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보는 행동(seeing),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행동(running to meet), 존경을 표하는 행동(honoring), 초대하는 행동(inviting), 새 힘을 얻도록 자신의 공간에서 쉬게 하는 행동(refreshing), 음식을 준비하는 행동(preparing), 대접하며 섬기는 행동(serving)으로 나타난다.[135]

갈대아 우르에서 낯설고 생소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가족들에게 구원의 손을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다. 그 과정 가운데에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변 이웃들의 수많은 환대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경험이 아브라함을 낯설고 생소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현현 혹은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봉사하였다.

---

[134] Wendy Whiteside, *Food and Faith 일용할 양식과 신앙*, trans. 유연희 (New York: The Methodist Church, 2010), 39, quoted in 정경호, "환대의 밥상, 환대의 신학삶" *신학과 목회 34*, (2010), 191.

[135] E. Keck Page,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1 (Nashville, Tennessee: Abingdon Press, 1994), 463, quoted in 정경호, 194.

예수는 사회적으로 정죄 받고 소외된 이들, 타자화된 이들을 그의 밥상으로 초대했다. 식탁이 타자를 초대하는 공간이 되었다. 마치 함께 잔치 자리에 참석한 것처럼 음식을 나누고, 잔치 자리의 자신과 신랑을 동일시하였다.[136]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흔히 '잔치'로 비유했으며(누가복음 14:15-24),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마태복음 11:19) 혹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마가복음 2:16)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일을 즐겼다. 박재순은 예수가 당시 죄인으로 정죄 받은 이들과 밥을 나누어 먹고 잔치를 벌인 것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하여 지배하고 억압하고 수탈하는 사회체제에 도전한 것으로 보았다.[137] 김동선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기득권자들보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식탁 교제의 자리로 불러 모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138]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이 잔치 자리는 예수가 '제 3 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시도였다.

예수는 이 잔치 자리를 일상으로부터 탈출인 '축제'로 여겼다. 남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하는 판단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139]고 대답하였다. 이는 결혼식장에서 축제의 만찬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수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에서 십자가 사건이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고(누가복음 22:14),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요한복음 13:3-14). 또한 낙망하고 좌절해서

---

[136] 마가복음 2:13-17 (개역개정).
[137] 박재순, *예수운동과 밥상공동체* (서울: 천지, 1988), 227.
[138] 김동선, *예수는 생명의 떡이요, 밥은 하늘입니다*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70.
[139] 마가복음 2:19 (개역개정).

고향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 떡을 만들고, 물고기를 잡아서 함께 먹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리는 '회복'과 '위로'가 있는 자리였음을 알 수 있다.

'1-2 세기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는 식사 중심의 예배였으며, 그들이 주로 성경 읽기와 설교를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장시간 함께 할 즐거운 '식사'를 위해서 모였다.[140] 뿐만 아니라 처음 200 년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식사 중 '예배'라는 개념을 만들지 않았다. 그들의 식사는 발 씻기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비스듬히 누워 식사하는 것은 몸의 긴장을 풀고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일상과는 다른 촉각, 움직임, 호흡의 즐겁고 편안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잔혹함을 배경으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비스듬히 누워 식사를 느긋하게 즐기며, 교제하고, 예배했다.

축제적인 식사(a festive meal)를 위한 모임은 매일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던 로마의 잔혹함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함께 먹고 나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사회적 몸(social body)'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의 몸, 하나의 사회적 몸으로써 함께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식사의 자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된 '사회적 몸',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몸'으로 나타내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정재는 '함께 먹는 것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예배'였으며, 옆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141]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

[140] 이정재, "코로나 19 이후-교리적 예배와 1-2 세기 예수 공동체의 예배," *신학사상* vol. 191 (December 2020): 149-58.

[141] 이정재, 158.

목회하고 있는 목사는 사역하는 교회에서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위하여 이주민들과 함께 식사 예배의 모델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환영의 자리로 초대할 필요가 있다.

21 세기 현대 사회에 환대의 밥상을 식사 중심의 예배로 실천하는 미국과 한국의 몇몇 교회들의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142] 첫째,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이라는 도시에 성 리디아 루터란 교회(St. Lydia's Lutheran Church)가 있다.[143] 그들의 식사 예배는 약 1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소위 말하는 본 예배에서 미국식 식사를 하고 있다. 예배의 공간은 식사를 위한 테이블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은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 저녁에 식사 예배를 진행한다. 그리고 그 공간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은 식사 준비에 참여하도록 초대된다. 그들의 예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가벼운 노래와 함께 테이블 위에 있는 촛불 점화하기; 2) 테이블 주변에 둥글게 서서 두 손을 들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했던 성찬(감사)을 위한 기도 함께하기; 3) 인도자가 성찬을 위한 빵을 축도한 후,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옆 사람과 나누기; 4) 모두 자리에 앉아 식사 나누기; 5) 성서를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기; 6)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기; 7) 함께 테이블을 정리하고 설거지하기; 마지막으로 8) 예수의 촛불을 상징하는 테이블 주변에 둘러서서 찬송과 헌금을 드리고 축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한다. 성 리디아 교회의 예배는 식사를 중심으로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에의 참여', 즉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지녔던 식사 예배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142] 이정재, 162-67.

[143] 성 리디아 루터란 교회, 접속일: 2021 년 3 월 11 일, http://stlydias.org 참조.

둘째, 미국 시애틀의 “디너 교회 컬렉티브(Dinner Church Collective)”는 식사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교회들의 모임을 지칭한다.[144] 그들은 예수의 디너 테이블 신학(Jesus’ Dinner Table Theology)에 초점을 두었다. 즉 예수가 식탁에 둘러앉아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나누었던 그 신학을 중점으로 교회의 변혁을 시작하였다. 대표 목사인 벌론 포스너(Verlon Fosner)는 디너 테이블을 통해 개인적인 신앙에서만 의미가 있었던 예수를 다시 수많은 소외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회의 중심에 놓을 수 있었다며, 이것은 그들 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주었고 이 도시를 다시 찾은 느낌이라고 고백하였다.[145] 현재 디너 교회는 시애틀 지역에만 10 곳이 있으며, 노스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 등 미 전역 300 개 이상의 지역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세워지고 있다. 디너 교회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식사 예배 형식이나 순서를 완벽히 따르지 않는다. 하지만 식사를 통한 이웃들과의 교제와 사랑의 나눔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를 넘어 함께하는 그 시간을 즐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환영받는다는 정신을 녹여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 홍대의 홍대청년교회(The Dining Church)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서 사랑의 식탁으로 이웃을 초대하여 함께 먹고 마시며 식사 예배를 드린다.[146] 식사 예배는 교회 멤버 중 한 사람이 한 주 동안 사랑하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식탁의 자리로 그들을 어떻게 초대할까를 고민하면서 작성한 ‘초대의 글’을 읽으면서 시작된다. 그 식탁의 주인은 모든 이웃(타자)이며, 세상 속 누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알고

---

[144] 디너 처치 컬렉티브, 접속일: 2021 년 3 월 11 일, https://dinnerchurch.com 참조.
[145] 접속일: 2021 년 3 월 11 일, https://dinnerchurch.com 참조.
[146] 홍대청년교회, 접속일: 2021 년 3 월 11 일, http://urch2016.com 참조.

싶은 사람, 아니면 그냥 나그네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어지는 성만찬식은 '예수의 삶'을 기억하는 자리로 그가 이웃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의 삶과 실천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자리이다. 예수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살과 피를 옆 사람에게 나누고 먹이겠다는 고백의 자리이기도 하다. 인도자가 먼저 "내 살과 피로 ○○○님(옆에 앉은 사람의 이름)을 먹이겠습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자신의 숟가락으로 자신의 밥을 떠서 옆 사람에게 먹인다. 먹은 사람은 다시 자신의 옆 사람에게 동일한 멘트로 자신 앞에 있는 음식을 떠서 옆 사람을 먹인다. 이렇게 각자의 살과 피는 서로에게 전이되고, 마침내 공동체 안에 배고파하는 사람은 없게 된다. 맛있는 음식들(만찬)과 이야기의 나눔은 식사 예배의 꽃이다.

따라서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는 이주민을 '만찬의 식탁'에 참여하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만찬의 식탁에서 예수의 삶을 기억하며 그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그리스도인으로 자신들의 살과 피를 이웃과 나눔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그 나라에의 참여를 위해 환영의 자리로 초대할 필요가 있다.

3. 실천적인 접근: 이주민 보호교회 네트워크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은 환대 지향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위해서 사역하는 교회와 서로 연대하며, '이주민 보호교회 네트워크'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에서 이민자들의 피난처로 사역하는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를 한국 도시 마을에서 적용하기 위함이다.[147] 이주민들과 함께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숨 쉬는 '이주민 보호교회

[147] 이민자보호교회, 접속일: 2021 년 3 월 11 일, https://kascn.org 참조.

네트워크'는 세상과 분리된 공간이 아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환대를 실천하는 네크워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민자 보호교회 비전"을 통해 늘 '작은 자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는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의 사역 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이민자보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교회로서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보호막 기능을 담당한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강도 만난 이웃을 책임지는 교회로서 이민자들이 빨리 피하도록 안전한 피난처의 기능을 담당한다. 셋째, 세상살이에 힘들어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더불어 함께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다음 여섯 가지의 행동을 할 수 있다. 첫째, 서류가 미비한 이민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행동 지침들을 만들어 커뮤니티와 모든 교회에 알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민자들과 서류가 미비한 이민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가장 가까이서 함께한다. 둘째, 이민자들의 긴급 피난처로서 교회가 함께 한다. 이민자보호교회 운동에 참여하는 교회들은 주변에 있는 다양한 이웃에게 이를 알리는 포스터와 배너를 붙여서 임시 피난처로서 교회를 알린다. 셋째, 이민 관련 변호사들은 교회가 요청하면, 찾아가서 법률 설명회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추방이나 각종 어려움에 부닥친 서류가 미비한 이민자들을 위한 핫라인을 운영한다. 다섯째,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민자들을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섯째,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긴급 기도회의 날을 지정하여 연합으로 예배하고, 설명회를 실시하여 더 많은 교회가 "이민자보호교회" 운동에 동참하도록 할 수 있다.[148]

---

[148] 접속일: 2021 년 3 월 11 일, https://kascn.org/vision 참조.

이민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의 행동지침을 통해 한국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는 이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소통을 통해 다문화적 사고를 확장하여 사역하는 교회를 서로 연대하여 이주민 보호교회 네트워크를 실천할 수 있다. 다문화적 사고는 다른 사람의 말을 마음을 모아 경청해주는 것부터 시작하며, 이주민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주민에 대한 개념 이해와 이주민의 낯선 곳에서의 삶을 생각하며 정서(외로움, 두려움, 친구의 필요성, 욕구)를 공감하여 환대를 경험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가 환대 신학에 기반한 '이주민 보호교회 네트워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을 향한 환대와 존중 그리고 피난처가 되려는 공간을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이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환대 신학에 기반한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주민과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관계 개선의 노력에 힘쓰는 이주민 보호교회 네트워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즉, 이주민 보호교회는 좁은 의미로 추방 위기에 처한 이주민들에게 교회 내에 임시 처소를 제공하며 추방을 피하도록 도울 수 있다. 넓은 의미로 이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동참하여 네트워크 교회들과 환대 지향의 다문화 이해교육으로 '다름'을 '다양성'으로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축하하며, 서로의 다름에 대하여 관용하고 아량을 베풀 수 있다. 그리하여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는 이주민들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환대를 경험하게 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갈 힘을 제공할 수 있다.

Chapter Ⅴ

결론
(Conclusion)

21 세기 세계화의 흐름은 국가 간의 경계인 국경을 허물고 있으며, 단일민족이라 주장하였던 한국의 상황도 이주노동자와 중국 동포, 결혼이민자를 수용한 지 불과 30 여 년이 되지 않아 이주민 200 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 거주 이주민은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에 상당수 거주하고 농촌보다 도시 마을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나는 도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을 만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으며, 약간 멀리 떨어져 그냥 지켜봤던 경험이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은 선주민의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노동력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고마운 사람들이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들을 경험하면, '다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외면하고 배제한 나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이주민을 경험하면서 '한국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이 이주민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본 프로젝트의 문제 제기(research question)였으며, 시작점이었다. 이주민을 만나보았던 목회 경력 10 년 이상의 40 대 목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했고, 그에 대한 질적연구방법 중에서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였다. 발견된 공통적인 중심 현상으로는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40 대 목사들이 이주민에게 무관심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이주민 경험에 대한 노력 부족, 판단을 유보하는 복합적인 가치관 형성 배경 등과 함께 이주민을 향한 목회 돌봄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이 있었다. 결국 그들의 이주민을 향한 목회 돌봄 모습을 살펴보니, 형식적으로 대처했으며, 이주민과 소통할 기회가 생겨도 복음 제시하는 데 그쳤으며, 그들을 환대하며 깊은

관계를 유지할 방법이 많았지만 이에 대해 관계 개선의 노력과 다문화 이해교육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목회 돌봄의 사역은 결과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무관심과 갈등의 재현이 반복되고 재생산하기 때문에 다문화사회 현상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인식해야 함을 발견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의 목회 돌봄이 이주민과 함께 상생하고 공존하는 환대 지향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의 필요성이 정립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탈식민주의로 다문화 현상을 진단하였고 환대 신학을 통해 다문화적 목회 돌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한 다문화적 목회 돌봄의 실천 방법을 제시하였다. 탈식민주의의 이론들을 통해 이주민의 타자화 현상을 이해하는 접점을 마련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주민을 향한 다문화적 목회 돌봄의 필요성에 대한 적용 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환대 신학의 이론으로 환대 지향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이 이주민의 무관심을 다른 형태로 차별하고 배제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상호의존과 환대를 통해 차이를 존중하고 공평과 평등, 상생, 공존의 문화를 건설해나가기 위한 이주민 이해의 능력을 전환하고자 하였다. 또한 상호문화교육의 방법을 실시하여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를 통해 사역하는 교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변화와 상호 치유를 도모하여 갈등의 회복을 지향하는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존재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나는 배타와 배제에서 환대를 지향하는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통한 실천적 전환을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에 기반한 목회 돌봄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환대 지향적 사고와 다문화 이해교육의 실천을 바탕으로 한 서로 함께하는 예배, 환대의 밥상, 그리고 이주민 보호교회 네트워크를 실제로 적용해보면서 계속 교육의 추가 사항을 발견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뿐만 아니라 앞에서 제시한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상황 가운데, 한국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 당면한 과제들을 목사 개인의 사역으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이 일관된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함께 모여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도시 마을에서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환대를 경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은 사역하는 교회의 교인뿐만 아니라 도시 마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건적인 환대를 넘어 무조건적인 환대를 향해 나아가는 실천이 요청된다. 먼저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의 인식이 변하고 의지를 갖추고 환대를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도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고통을 경험하고 차별과 배제를 당하는 일이 사라지고 상호의존 가운데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여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살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회고할 때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박사 과정은 목회자로서 안고 가야 할 목회의 길잡이가 되는 물음 하나를 나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왜 다른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나?'라는 물음이다. 또한, 나도 역시 그동안 이주민들이 주위에 있었음에도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라며 안일한 모습을 보이던 나를 직면해야 했고, 끊임없이 안일하고 굳어진 나의 미숙한 태도들을 돌아보았다. 나도 동일하게 이주민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지 못했으며, 환대 지향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의 입장을 가지기까지 많은 심리적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을 직면하고 극복해 나가면서 깨달은 것은, 여전히 주위의 많은 사람이 차별과 배제 그리고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무관심과 안일함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실천적인 태도 함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치유'이고, 이러한 치유를 통해서만 사회가 '변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더불어 이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가 실천하였다. 따라서 나를 포함한 목회하고 있는 한국의 모든 교역자가 '다름'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배워 '나는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왜 다른 사람도 존중받아야 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나?'라는 질문 앞에 마주 서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 모든 깨달음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을 통하여 시작되었다. 나는 신학의 과정이란 자기의 내면을 성찰함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학기 기간 지금까지의 내 목회와 나 자신을 살필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나 다움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특성에 감사하며 누군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이 목회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먼저 누려야 함을 배울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름'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나 자신의 최선의 방법일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게 될 때 인간은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며 성장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관계성은 '다름'을 이유로 때로는 갈등을 경험하는데, 한국 사회는 특히 이주민에 대하여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다름'에 대하여 함께 사는 방안을 클레어몬트 실천신학 목회학박사 과정의 수업이 제공했던 가족 간의 갈등을 살펴보면서 고민하였다. 또한, 다문화 사회의 현장을 살펴봄으로

실제적인 갈등의 현장으로 넓혀갈 수 있었으며, 탈식민주의를 배우면서 어떤 편견을 가졌는지 살펴보고, 기독교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개인적이며 또한 구조적일 수 있는데 이를 탐구하는 과정 중에 '나는 차별의 수혜자인가?', '차별을 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차별을 극복하고자 애쓰는 사람인가?'를 질문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탈식민주의의 이상향은 개인의 존엄과 사회의 존엄을 차별하지 않고 상호의존의 시대를 만들어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목회 돌봄의 지향점은 환대 신학임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가 제시하였고, 바울이 실천하였음을 신약성경을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주민을 포함하여 지금도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이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는 점에서 클레어몬트 실천신학 목회학박사 과정은 내 목회 돌봄에 변혁을 경험케 하였다.

2021 년에 취임 일주일 맞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인종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해소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평등의 증진은 모두의 일이다."라고 강조하였다.[149] 또한, "행정명령을 통해 주택도시개발부에 주택정책에 있어 인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하고, 연방기관에 외국인 차별과 소외 대응도 지시했으며, 법무부에 아시아계 미국인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라."고 요청했다.[150] 이 정책은 인종의 편견에서 벗어나 환대를 지향하는 상호문화의 길을 들어서게 하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차별의 장벽 앞에 놓인 모든 곳이 개인적인 차이를

[149] 전성필, "바이든, 인종차별 해소 지시... 아시아계 혐오 대응도 주문," *국민일보*, January 27, 202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469783.

[150] 전성필.

존중하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오기를 고대한다. 그리고 본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을 포함한 한국의 교역자들이 이주민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불편함이 있어도 서로 존중하여 찾아가는 환대 지향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수행하기를 바란다. 또한, 찾아오는 이주민을 보호하는 이주민 보호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다문화 중심의 목회 돌봄의 변혁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부록 I : 연구참여 동의서
(Appendix I: Informed Consent Form)

귀하는 “한국 도시 마을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적 목회 돌봄과 실천을 위한 질적 연구: 환대 신학을 중심으로”라는 제목하의 연구논문에 참여합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 대학원에서 실천신학을 담당하시는 김남중 교수님의 지도 아래 수행되고 있습니다. 논문과 관련하여 교수님과 연락하기를 원하신다면 김남중 박사 (njkim@cst.edu/ +1 ***-***-****), 오현선 박사 (ohs9383@gmail.com)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신다면, 귀하는 인터뷰에 약 한 시간가량 참여하시게 될것입니다. 인터뷰 진행과정 동안 인터뷰 내용은 녹음되고 필사될 것입니다. 녹음되는 모든 내용과 필사본은 논문 연구에만 사용될 것이고 논문 연구가 끝나면 모두 파기될 것입니다. 귀하는 연구 참여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이름, 이메일, 다른 개인적인 정보는 연구자료가 수집되는 기간 동안만 보관되고 연구 종료 후 폐기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성함과 개인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기재함으로써 귀하의 권익과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연구참여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귀하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절할 수 있으며 또한 어느 때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 철회는 귀하가 가지고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연구참여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연구와 관련한 질문이 있거나 귀하의 이메일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면

연구자 용환웅 목사의 전화번호 ***-****-**** 혹은 이메일 519yong@hanmail.net 으로 연락바랍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 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를 받아왔으며 이 연구의 연구번호는 2020-006 입니다.

만약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이 연구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기관윤리 심사위원회 회장, 김두영 박사의 연락처인 ***-****-**** 혹은 viastar@hanmail.net 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익명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 참여자의 서명

나는 위에 설명된 정보를 읽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양식에 대한 사본을 받았습니다.

연구 참여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

연구 참여자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_

연구자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

연구자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_

부록Ⅱ: 본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피드백
(Appendix Ⅱ: Feedback from Research Participants on this Project)

주제	환대 지향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에 따른 다문화 이해교육 실천에 대한 소감 모음
시간	2021 년 3 월 15 일 – 3 월 24 일
진행	2021 년 3 월 15 일에 본 프로젝트의 2 차 드래프트 첨부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이를 읽고 난 후의 소감을 전화로 인터뷰하였다.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것에 대해 미리 동의를 구했으며, 원하는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녹음을 중지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녹음된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에 요약해서 실릴 것이며, 녹음자료는 연구 기간 이후 모두 파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녹음파일명은 "202103 통화녹음 ○○○ 목사"이며, 2021 년 3 월 25 일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A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 이해교육 실천 제시에 동의한다.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이주민과 함께 하는 예배를 함으로써 상호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언제나 이주민을 위해 교회 문을 열어 놓고 서로 함께하는 예배를 실천하고자 한다. 도시 마을에서도 이주민과 상호의존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주민들이 차별과 배제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다문화 이해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천적인 사역의 환대의 밥상은 이주민들을 언제나 교회에 초대하여 실천하면 좋겠다. 또한, 이주민 보호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을 교단을 넘어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과 함께 연대하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확장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에 대한 다름의 시선과 편견을 버리고 상호의존하여 도시 마을에서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다.
B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다문화 이해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주민들을 위한 환대 지향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이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더 이상 차별을 당하지 않고, 상호의존하며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한 다문화적 목회 돌봄 실천 제시는 그 가치가 크다고 생각한다. 서로 함께 하는 예배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환대하는 공동체임을 인식하게 하고, 성만찬의 본래적인 의미를 강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차별 없이 한 가족임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전적인 접근에 있어서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려서부터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만 경험했던 어린이들에게 다문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성과 인간으로서 상호존중을 배워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환대의 밥상을 제공하여 초대교회의 밥상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이주민들과 상호의존하고 환대하는 목회 돌봄이라고 생각한다. 즉,

	환대의 밥상을 통해 선주민과 이주민이 동등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주민 보호교회 네트워크는 사실 처음 경험하였다. 이주민 보호교회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이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온전히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주민들을 위해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 등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도시 마을에서 다문화 이해교육이 필요한 곳은 많다고 생각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이나 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회 주변이나 교인의 가족 중에 이주노동자가 근무하는 회사 직원들의 다문화 이해교육을 교회가 지원하는 것도 좋겠다. 앞으로 환대 지향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통해서 도시 마을의 이주민들과 상생하고 상호의존하여 평화로운 공존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C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사회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도 이주민을 경험하며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를 프로젝트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에서 '상호의존'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향해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 '환대'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목회 현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회의 새가족에게만 적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주민들에게도 환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성만찬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주일예배 시간에 이주민들과 서로 함께하는 예배를 실천하고자 한다. 환대의 밥상은 이주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밥상을 함께 나누는 것이 천국의 잔치와 같다는 것에 동의한다. 환경이나 문화가 다르지만, 식탁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상생과 평화로운 공존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이주민 보호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교회와 목사들이 협력하면 더 많은 이주민들을 위한 목회 돌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주민들을 위한 목회 돌봄이 목회 현장에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으나, 프로젝트를 읽으면서 이주민을 위한 환대 지향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실천하고, 다문화 이해교육으로 목회 돌봄의 영역을 더 넓힐 수 있는 인식을 갖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였다.
D	도시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주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었지만 프로젝트를 읽으면서 주변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혼인이주민, 이주노동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사역하는 교회에 이주민이 방문했으나 다름에 대한 이해 부족을 경험하였다. 그 이유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교단 차원에서 다문화 이해교육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한 다문화적 목회 돌봄 실천 제시'는 이주민을 위한 목회 돌봄 사역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이주민을 위한 목회 돌봄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환대 지향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으로 상호문화를 이해하여 이주민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상호의존하며 상생과 평화로운 공존의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다.
E	다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는 이주민을 경험했으나 무관심하였다. 프로젝트를 읽으면서 그 동안 인식 부족으로 내가 이주민을 위한 목회 돌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이해교육과 환대 지향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해 서로 함께하는 예배를 경험하고 환대의 밥상과 이주민 보호교회 네트워크를 이웃 목사들과 연대하여 목회 돌봄을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도 차별 없이 죄인에게 동등한 관계를 맺으셨던 것처럼 이주민들과 상호의존하여 환대를 지향하는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통해 상생과 평화로운 공존에 기여하는 목회를 실천했으면 좋겠다.
F	UN 에서 이야기하는 '세계인권선언문'을 보면 인간을 향한 기본적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의 글이 나온다. 1 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동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이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어떤 누구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억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프로젝트를 읽으면서 이주민들이 경험한 차별과 소외는 나의 무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앞으로 이주민을 위한 목회 돌봄을 하면서 상생과 공존이라는 환대의 인식을 갖고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주민을 경험하면서 다름을 넘어 함께 살아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여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실천하고 다문화 이해교육을 당장 목회 현장에서 실천하면 좋겠다. 상호의존과 환대 지향의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이주민을 위한 목회 돌봄을 새롭게 실천하면 좋겠다. 상호문화를 존중하고 예수를 닮아 환대를 지향하는 다문화적 목회 돌봄을 환대의 밥상으로 이주민을 주일마다 초대하여 서로 함께하는 예배를 실천하면 좋겠다.

참고문헌
(Bibliography)

[국내도서]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21 세기 영구적 평화를 찾아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______. *포스트모더니즘과 탈식민주의 시대의 신학*.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6.

강성열. *마을목회의 성서적 고찰과 실천*. 충남: 큰빛, 2017.

권현희, 류성환, 오현선, and 한신애. *시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이해교육 매뉴얼*. 광주: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2018.

구성모. *한국 사회의 다문화 상황과 문제: 다문화선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김동선. *예수는 생명의 떡이요, 밥은 하늘입니다*.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김애령. *주체와 타자 사이: 여성 타자의 은유*. 서울: 그린비출판사, 2012.

김영순. *질적연구의 즐거움*. 서울: 창지사, 2018.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 Bricoleur*.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2.

______. *질적연구방법론 II :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______. *질적연구방법론 IV: Case Studie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김영천 and 이현철. *질적연구: 열다섯 가지 접근*.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7.

김혜란 and 최은영. *성서에서 만나는 다문화 이야기*. 서울: 대장간, 2013.

문시영, 이상훈, 임성빈, and 노영상.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7.

박노자, 성상희, 박흥순, 오경석, 이용승, 이용재, 오현선, and 김수진. *지구화와 이주 그리고 생명평화*. 대구: 도서출판참, 2019.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서울: 살림, 2012.

박재순. *예수운동과 밥상공동체.* 서울: 천지, 1988.

박창건. “에베소서.” *대한기독교서회창립 100 주년기념 성서주석* vol. 47.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박흥순. *포스트콜로니얼 성서해석.* 서울: 예영 B&P, 2006.

박흥순, 강성열, 권현희, 류성환, 오경석, 오현선, 유봉애, 최영일, and 한신애. *다문화사회 이야기마당: 다문화교육 매뉴얼.*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박흥순, 권현희, 류성환, 오현선, and 한신애. *시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이해교육 매뉴얼.* 광주: 다문화평화연구소, 2018.

오현선. *기독교다문화교육 다름·다양성·관용.* 서울: 꿈꾸는터, 2014.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and 김한별.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2nd*. ed. 서울: 박영사, 2018.

이도영. *페어처치.*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이종열, 정준호, 주동범, 주효진, and 한승준.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슈와 정책.* 서울: 조명문화사, 2013.

장훈태. *선교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11.

조성돈, 심민수, 정재영, and 장진원. *더불어 사는 다문화 함께하는 한국교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2.

정형철.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코스모폴리타니즘.* 서울: 도서출판 동인, 2013.

총회한국교회연구원. *마을목회매뉴얼.*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8.

채형욱. *100 주년기념성경.*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8.

태혜숙. *한국의 탈식민 페미니즘과 지식생산. 2nd* ed. 서울: 문학과학사, 2006.

[해외도서]

Kim-Cragg, HyeRan. *Interdependence a postcolonial feminist practical theology*. Eugene: Pickwick Publications, 2018.

Kwok, Pui-lan. *Postcolonial Imagination and Feminist Theolog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5.

Lincoln, Andrew T. *Ephesians. Word Biblical Commentary.* Dallas: Word Books, 1990.

[번역서]

Bhabha, Homi K. *Location of Culture 문화의 위치*. Translated by 나병철. 서울: 소명출판, 2012.

Derrida, Jacques. *Adieu a Emmanuel Levinas 아듀 레비나스*. Translated by 문성원.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6.

______________. *De l'hospitalite 환대에 대하여*. Translated by 남수인. 서울: 동문선, 2004.

Huddart, David. *Homi K. Bhabha 호미 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 Translated by 조만성. 서울: 앨피, 2011.

King, Nigel and Christine Horrocks. *Interviews in Qualitative Research 질적연구에서의 인터뷰.* Translated by 김미영, 김윤주, 김려화, 박금주, and 지은주. 서울: 현문사, 2013.

Koening, John. *New Testament Hospitality 환대의 신학*. Translated by 김기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Levinas, Emmanuel. *Le Temps et L'autre 시간과 타자*. Translated by 강영안. 서울: 문예출판사, 1996.

Moore-Gilbert, Bart. *Postcolonial Theory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Translated by 이경원. 서울: 한길사, 2001.

Ruskin, John. *Unto This Last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생명의 경제학*. Translated by 곽계일. 서울: 아인북스, 2014.

Russell, Letty M. *Just Hospitality - God's Welcome in a World of Difference 공정한 환대-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환영*. Translated by 여금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Said, Edward W. *Orientalism 오리엔탈리즘*. Translated by 박홍규. 서울: 교보문고, 2007.

Sweet, Leonard. *From Tablet to Table 태블릿을 넘어 테이블로*. Translated by 장택수. 고양: 예수전도단, 2015.

Young, Iris Marion.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Translated by 김도균 and 조국. 서울: 모티브룩, 2017.

Young, J. C. Robert. *White Mythologies 백색신화*. Translated by 김용규. 부산: 경성대학교출판부, 2008.

[저널]

강남순. "코즈모폴리턴 환대의 신학: 필요성과 불가능성의 경계에서." *기독교사상* no. 668 (August 2014): 234-50.

강옥조. "그람시와 서발턴 개념." *역사교육* vol. 82 (2012): 135-61.

고정갑희. "탈식민주의의 저항전략과 페미니즘." *젠더와 문화* vol. 4, no. 1 (June 2011): 167-203.

김경섭. "탈식민주의와 포스트탈식민주의의 정치적 가능성." *현대사상* no. 2 (May 2008): 107-47.

김광기. "관용과 환대, 그리고 이방인: 하버마스와 데리다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vol. 36, no. 4 (December 2012): 133-60.

김기철. "다문화적 돌봄을 위한 목회신학적 성찰." *신학과 세계* no. 86 (June 2016): 147-87.

김난예. "기독교교육 방법에서 밥상공동체의 교육적 가치." *기독교교육논총* no. 46 (June 2016): 47-78.

김은정. "간문화적 기독교 종교교육방법론." *기독교교육정보* vol. 27 (December 2010): 153-70.

김창근.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정책을 위한 다문화 공간론적 접근의 시사점." *윤리연구* vol. 1, no. 118 (March 2018): 199-226.

김한식. "노인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상호문화교육콘텐츠 방안 연구." *교육문화연구* vol. 22, no. 5 (October 2016): 335-53.

김혜령. "초대의 환대와 방문의 환대." *제 3 시대* vol. 92 (September 2016): 6-10.

노원석. “돌봄 사역을 통한 다문화 이주민 목회상담의 원리와 방안.” *개신논집* vol. 18 (September 2018): 177–99.

문성훈. “타자에 대한 책임, 관용, 환대 그리고 인정.” *사회와철학연구회* no. 21 (April 2011): 391–418.

문희경. “다문화 가족상담의 현황과 목회상담적 과제.” *신학지남* vol. 82, no. 2 (June 2015): 201–31.

민가영.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 교육.” *문화와 사회* vol. 9 (November 2010): 101–31.

박민수. “문화 혼종성의 이론적 고찰: 호미 바바를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vol. 39 (2015): 23–41.

박충구. “탈식민주의 담론의 기독교 사회윤리학적 이해.” *신학과 세계* vol. 49 (2004): 188–214.

박흥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활동하는 다문화 사역자와 지역교회 역할 연구.” *신학논단* vol. 83 (March 2016): 155–91.

반재광. “누가의 환대의 식탁 연구: 누가복음 14:12–24 과 사도행전 10 장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vol. 24, no. 3 (August 2017): 553–85.

서운석. “한국사회의 국제개방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 연령대별 비교를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vol. 6, no. 3 (August 2016): 190–219.

설 한.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퇴조 원인 분석: 문화 개념과 규범성 문제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vol. 7, no. 1 (August 2014): 81–106.

송인재. “근현대 중국 코즈모폴리터니즘에 대한 고찰.” *인문사회 21* vol. 8, no. 6 (December 2017): 517–30.

안덕원. “탈식민주의 이론으로 바라보는 기독교 세례 예식–저항과 어파퍼시스 그리고 제 3 의 공간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vol. 79 (March 2015): 257–82.

이소희. “호미 바바의 ‘제 3 의 영역’에 대한 고찰–탈식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영미문학 페미니즘* vol. 9, no. 1 (2001): 103–25.

이수환. “다문화 이주민을 위한 선교적 목회의 역할.” *복음과 선교* vol. 30 (June 2015): 49–82.

이정은.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의 대결: 한국적 적용을 위한 연구.” *시대와 철학* vol. 28, no. 1 (March 2017): 191–234.

이정재. “코로나 19 이후–교리적 예배와 1–2 세기 예수 공동체의 예배.” *신학사상* vol. 191 (December 2020): 147–76.

이진구. “근대 한국 개신교와 불교의 상호인식–개신교 오리엔탈리즘과 불교 옥시덴탈리즘.” *종교문화연구* vol. 2 (April 2000): 145–64.

이향순. “공감에 기초한 타자 지향적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no. 60 (December 2019): 405–35.

정경호. “낯선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대의 밥상.” *기독교사상* vol. 657, no. 9 (September 2013): 80–91.

______. “환대의 밥상, 환대의 신학삶.” *신학과 목회* vol. 34 (September 2010): 177–209.

조귀삼. “유럽과 한국의 다문화인 유입에 따른 종교 갈등의 비교와 선교전략 연구.” *복음과 선교* vol. 17 (April 2012): 175–210.

조기연. “기독교 예배의 본질과 의미.” *기독교 사상* vol. 652 (2013): 26–34.

최성칠. “공동체 안에서의 무관심: 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 *장신논단* vol. 24 (December 2005): 249–71.

최종천. “탈식민주의 문화 이론의 해체론적 접근: 바바와 데리다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vol. 61 (2011): 389–413.

허정수. “서구중심주의와 기독교: 기독교 철학과 선교사.” *사회과학연구* vol. 16 (2008): 610–46.

[학위논문]

윤성필. “다문화 목회와 선교적 리더십 개발 연구.” PhD diss.,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9.

이명재. “한국 사회 다문화 가정 문제해결을 위한 목회적 대안.” PhD diss.,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2014.

이성애. “호미 바바의 혼종성을 통한 종교성 재구성에 관한 연구.” ThM diss., 연세대학교대학원, 2015.

정미경. “다문화사회를 향한 한국기독교 이주민선교의 방향과 과제.” ThD diss.,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0.

정상식. “하나님 나라 잔치의 개념으로서의 기독교 성찬 성례전을 통한 예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M.Div. thesis,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4.

최권용. “사례연구를 통한 지역교회 이주민목회 방안에 관한 연구.” ThD diss.,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3.

한기석. “한국 다문화가정의 신학형성과 목회실천 방안에 관한 연구.” PhD diss., 안양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황종하. “한국교회의 다문화 목회 유형 연구.” PhD diss., 개신대학원대학교, 2020.

[웹사이트]

법무부. “2020 년 5 월 출입국 동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May 3, 2020. http://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227&fn=temp_1597992655350100.

유영대. “여목사 1 만명시대... 여전한 유리천장.” *국민일보.* January 15, 201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1340.

전성필. “바이든, 인종차별 해소 지시... 아시아계 혐오 대응도 주문.” *국민일보.* January 27, 202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469783.

디너 처치 컬렉티브. https://dinnerchurch.com.

성 리디아 루터란 교회. http://stlydias.org.

이민자보호교회. https://kascn.org.

홍대청년교회. http://urch2016.com.